



포커스

2017년 통일환경과 우리의 통일과제

안 제 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p>▶ 통일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p>	<p>▶ 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p>	<p>▶ 통일로 통하는 즐거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커스 2017년 통일환경과 우리의 통일과제 통일 돋보기 한반도의 고민 '인구절벽' 통일이 답이다! Today 남북 부조리 무상 교육이 부른 '북한 과외 열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을 여는 사람들 탈북청소년 영어멘토가 되어 내일의 통일을 준비합니다 통일 Talk 충주중산고 인권 동아리, 북한 주민을 위한 콘서트 열다 좌충우돌 남한적응기 나중에 신문에서 절 보실 겁니다! '탈북만 최초 경찰간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느낌 있는 여행 마침표로 시작하는 처음 대한민국 7번 국도 통일 웹툰 가두배추와 사자고추로 만든 고소한 기름밥 통일 레시피 설에 맞는 별미 보양식, 개성무침

웹진앱을 설치해보세요
정부 3.0
지나호보기
웹진 다운로드
구독신청
구독해지
웹진개선의견

<p>통일 플러스</p> <p>포커스 통일 돋보기</p>	<p>통일 스토리</p> <p>통일을 여는 사람들 통일 Talk</p>	<p>남북공감</p> <p>Today 남북 좌충우돌 남한 적응기</p>	<p>민주평통365</p> <p>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부의장·협의회장 합동연수 NUAC 뉴스</p>	<p>즐거운 통일</p> <p>느낌 있는 여행 통일 웹툰 통일 레시피</p>	<p>심표, 느낌표</p> <p>이벤트 당선작 이벤트 ① 이벤트 ② 이벤트 당첨자 발표</p>
--	--	--	--	---	---



2017년 통일환경과 우리의 통일과제

안 제 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여름이 가을로 이어지고 가을은 겨울을 부르고 겨울은 또 다시 봄을 잉태하는 계절의 이치를 모를 사람은 없다. 그러나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 해를 넘기고 새해를 맞은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새로운 각오와 희망이 가득해야 할 이때,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우리 앞에 놓인 냉엄한 통일현실을 헤쳐 나가야 하는 부담감 때문일지도 모른다.

올해 한반도는 국익을 추구하는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통일문제는 그만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통일이 기본적으로 남북당사자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북아 및 국제정세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점은 우리가 처한 통일 환경과 국제정세가 우리의 희망만큼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올해 북한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핵보유와 경제건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치밀한 셈법을 통해
다양한 전략전술을 구사해 나갈 것이다.**



작년에 북한은 조선로동당 7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김정은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고 핵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에도 북한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핵보유와 경제건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치밀한 셈법을 통해 다양한 전략전술을 구사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실리추구 과정에서 북한은 핵전력을 통해 무소불위의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익계산의 대상인 우리는 상당한 부담감을 안게 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외교정책 변화와 국익을 중심으로 한 갈등은 우리의 통일 환경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새롭게 등장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분명치 않은 정책방향으로 인해 여기저기에서 우려와 걱정이 섞인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강조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비판하고 있는 트럼프의 정책은 힘을 중심으로 한 대외정책으로 이어져 동맹국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한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핵에 대한 입장 역시 분명하지 않다. 특히 시진핑의 권력을 한층 강화한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외교정책



을 수정할 경우 그 변화를 둘러싼 갈등의 소지들도 얼마든지 내포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문제 역시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문제에 대한 레토릭은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이어지겠지만 미중 간 경쟁 속에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남북관계와 우리의 통일문제 또한 후순이 될 가능성도 있다.



▲ 2016 청년대학생 남북통일운동 출정식

결국 선행에 따른 국익추구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 현실을 놓고 보면 2017년의 통일환경은 그 만큼 다양성을 띠게 될 것이다. 중요한 점은 다변화된 통일환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통일환경의 변화만큼 지속적인 통일환경 조성의 필요성 또한 증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실을 직시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우리 스스로를 위한 일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다.

2017년의 통일환경은 다양성을 띠게 될 것이다.
중요한 점은 다변화된 통일환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다.



▲ 국가안전보장회의

그 동안 우리 국민이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상황을 일찌된 단결로 극복해 왔듯이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는 것은 오히려 불안과 우려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불안과 우려를 넘어 미래 가능성을 열어둔 일에 더욱 전념해야 한다. 특히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남다른 사명감으로 '통일준비에는 우리 국민들의 통일외식 공감대 형성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유연하게 통일준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은 곧 자문위원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일이다. 자문위원으로서 냉철한 현실인식과 실천적인 방향, 방법들을 통해 통일준비에 대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우리 모두의 행복을 일구는 일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회란 스스로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새삼 재론할 여지가 없다. 역사학자 토인 비는 '내일 알아야 할 것을 오늘 배워야 한다(We should learn today what we have to know tomorrow)'며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회와 한반도 전반에 걸쳐 급속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준비에 대한 예지력은 국가지도자와 정치인만이 아닌 국민 모두가 갖춰야 할 생존의 지혜이다. 통일에 대한 염원 앞에 험난한 파도가 밀려올 때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7년 경유년 새해가 차가운 겨울을 넘기고 또 다른 따뜻한 해로 이어질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달려 있다.

<사진. 청와대 / 연합뉴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창작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이미지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고민 '인구절벽' 통일이 답이다!

젊은 층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인구절벽' 현상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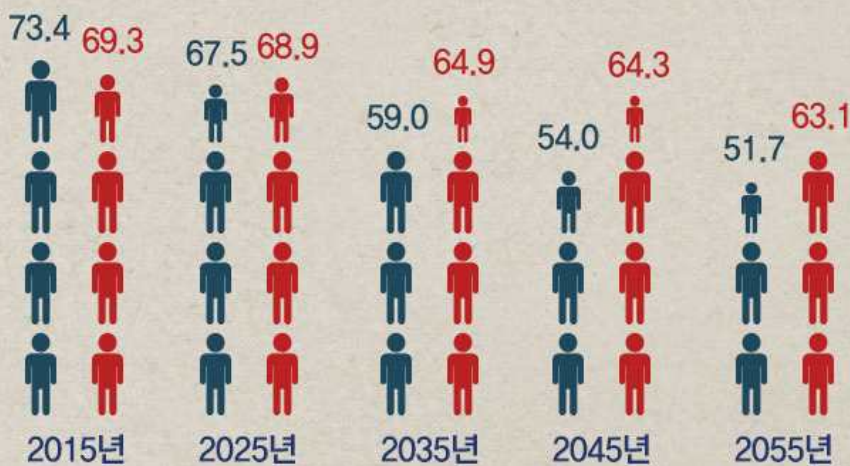
세계 선진국의 인구절벽을 예고한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한국이 2010년 소비정점을 찍은 뒤 2018년까지 유지하다 급격한 인구절벽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이러한 남한의 '인구절벽'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해법, 바로 통일이 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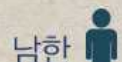
남북 연령별 인구 전망(2015~2055)



생산가능(15~64세)인구 비율 (단위:%)



노령(65세 이상)인구 비율 (단위:%)





남북 출산율 추이(2015~2030)

남한 평균 출산율 추이 (단위:명)



북한 평균 출산율 추이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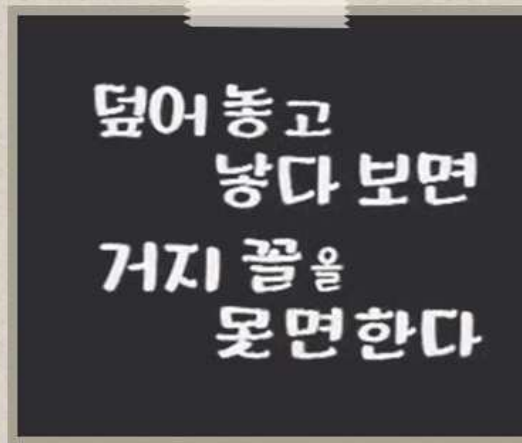
포스터로 보는 남북 출산 정책

남북 시기별 출산 정책

- 남한의 19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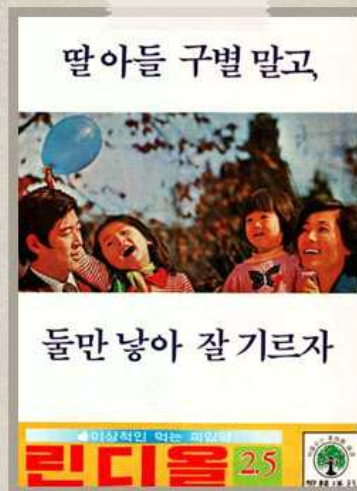
1960년대에는 정부에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가족계획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30여 년간 출산율을 낮추기 위한 홍보 활동이 시행된다.



• 남한의 1970년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두 자녀 정책이 자리를 잡았다. 60년대 가구 당 6명이던 출산율이 70년대에는 4명으로 줄어들었다.



• 남한의 1980년대

1980년대는 전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한 뒤 아이를 가지는 시기였다. 이에 정부는 2자녀를 권장하던 기존의 표어를 1자녀로 줄여 폭발적 인구증가를 방지하고자 했다.





● 남한의 2000년대

2000년대에는 급격히 낮아지는 출산율에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표어 역시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등 출산을 장려하는 내용으로 변화했다.



● 북한의 1950~1960년대

이 시기 북한의 키워드는 '경제성장'이었다. 공장과 건설장에 더 많은 철재를 보내 생산력을 끌어올리자는 키워드처럼 휴전 이후 북한의 인구는 7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3%의 수준으로 성장세를 유지한다.



● 북한의 1970년대 중반~1990년대 초반

북한의 출산율은 197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2명을 약간 넘어서는 정도를 유지하며 완만하게 성장한다. 남한처럼 국가 수준의 산아제한 정책은 없었지만, 의료기관에서 피임을 권장하기 시작했다. 가족을 상징하는 80년대의 포스터에도 1명의 자녀만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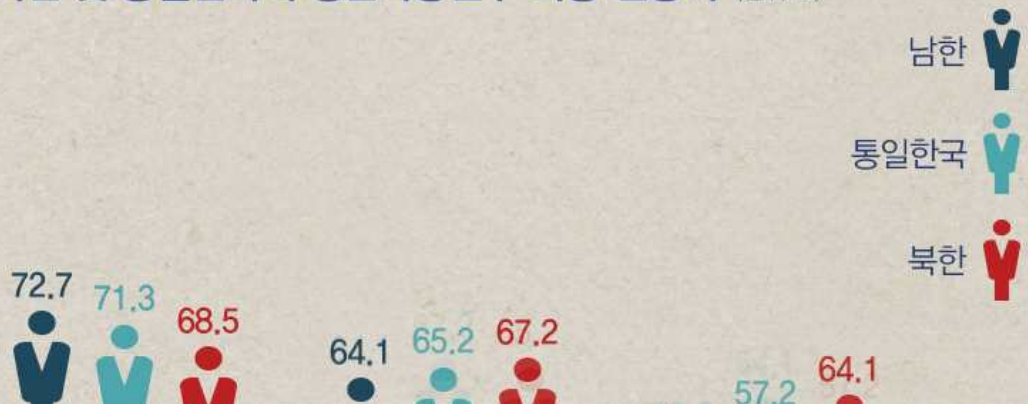
● 북한의 1990년대 이후

북에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아사를 비롯한 영양결핍, 탈북으로 많은 인구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2012년 김정은은 어머니날을 맞아 대규모 '어머니 대회'를 개최해 자녀를 많이 낳은 어머니를 선정, 노력영웅 칭호와 훈장을 수여했다.



인구절벽 극복할 방안, '통일'

한국·북한 및 통일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전망치 (단위:%)





북한 인구가 통일한국으로 그대로 유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한반도에는 총 인구 7467만954명, 생산가능인구 비중 71.7%(5353만8723명)인 단일국가가 들어서게 된다. 2010년 기준으로 남한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72.7%이지만 2050년까지 53.2%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통일이 이뤄지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57.2%까지 방어할 수 있다.(한국개발연구원)



탈북청소년 영어멘토가 되어 내일의 통일을 준비합니다

이병화 전 노르웨이 대사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정착해 생활하며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외래어다. 티켓, 나이프, 냅킨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외래어조차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종종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한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영어교육을 받아 온 또래 친구들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탈북청소년들에게 영어는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손꼽힌다. 심지어 어렵게 대학에 입학 한 후에도 10명 중 3명 정도가 영어 과목으로 인해 학업을 중도 포기할 정도다. 이병화 전 노르웨이 대사는 이러한 탈북청소년들의 영어 멘토링을 통해 학업은 물론 남한사회의 적응을 돕고 있다.

‘먼저 온 통일’이 진짜 ‘통일의가교’가 될 수 있도록

출신 성분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탈북청소년들은 영어수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까지 하고도 결국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욱이 똑같은 교실에서 수업 받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부족한 ‘영어’ 실력은 단순히 교과목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중학교 2학년 생인 영현이(가명)이는 알파벳만 겨우 읽을 줄 알아요. 그런데 영어 문장을 줄줄 읽어 해석하고, 영작도 해내는 반 친구들과 같은 수업을 듣습니다. 못 배웠으니 모르는 게 당연한데도 그게 부끄러워 수업 내내 눈치껏 입을 뻐끔거리고, 교과서만 멀거니 바라본다는데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게 한 번 자신감을 잃은 아이들은 영어 수업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 국어 등 다른 교과목 수업이나 학교생활 자체에 흥미를 잃고 종래에는 적응을 못 한 채 학교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이 전 대사는 ‘먼저 온 통일’인 탈북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통일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어 실력 향상을 통해 자신감부터 심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더욱이 공직생활 중 대부분을 모스크바,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지역에서 근무하며 평소에도 북한이탈주민과 통일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이 전 대사였기에 퇴직 후 자연스럽게 탈북청소년들의 영어 멘토를 자칭할 수 있었다.



탈북청소년의 영어 멘토가 된 전 노르웨이 대사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로 재능봉사를 자청한다고 해도 아직 타인에 대한 경계심과 개인정보 노출에 불안감을 가진 탈북청소년을 쉽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에 이병화 전 대사는 2015년 노르웨이 대사로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 온 후 본격적으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나 방과 후 교실 등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과의 연계를 부탁했다.

한창 사춘기, 예민할 시절의 아이들이기에 대사 시절 북한이탈주민을 자주 만났던 이 전 대사라 해도 탈북청소년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부터 이수한 후에야 비로소 아이들과 영어 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일주일에 10시간, 집에서 출발하면 꼬박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거리. 이제는 적지 않은 나이에기에 가끔 야속하게 눈비가 내리는 날이면 몸이 고된 것도 사실이지만, 작은 재능의 실천이라도 통일에 작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란 책임감으로 수업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교재를 챙겨 들고 문을 나선다는 이병화 전 대사.



“수업은 지난해 초부터 시작했지만, 공부방이나 아이들 사정으로 인해 수업이 꾸준히 진행되기 어려울 때가 많아 아직 서로 ‘마음의 문’을 여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라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는 수업 내용 외에는 먼저 묻지 않거든요. 사실 북한 출신이란 것만 빼면 남한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개중에는 열심히 해서 몇 십 점씩 성적이 오른 녀석도 있고, 어렵다고 계속 딴짓만 하는 아이도 있고요. 그래도 순하고 참 예뻐요.”

가끔은 수업 외에도 이성이나 진로 등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는 아이들에게는 인생의 선배로서 좋은 조언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아이들과 시나브로 경을 쌓아가는 동안 이 전 대사의 마음속 통일에 대한 열망 역시 더 단단해졌다.

탈북민이 행복한 나라가 통일한국의 희망 씨앗이다

요즘처럼 북한이탈주민이 많지 않던 90년대, 러시아 모스크바 대사관에 근무하며 북한사람을 처음 만났던 이 전 대사는 북한사람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만 남북한 사람들이 가진 막연히 서로 ‘다를 것’이라는 선입견과 불신으로 인해 오히려 마음의 장벽이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신뢰와 통일에 대한 의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통일을 이룰 수 있다며 독일통일을 예로 든다.

“독일이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정치적 상황이나 외교적인 분위기 등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일 순위는 동독주민들의 열망이었대요. 통일을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통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북한 주민 상당수가 남한이 아닌 중국과의 통일을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봤을 때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 전 대사가 탈북청소년을 가르치는 이유 역시 그 때문이다. 어학공부를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남한사회에 잘 적응해, 남북한의 상황을 모두 경험한 탈북청소년들이 언젠가 통일의 가교로서 제 역할을 다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 아이들과 수업이 없는 날이면 북한 인권개선 캠페인 등에 빼놓지 않고 참여하는 이유 역시 같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닌 마음의 거리가 먼 남북한.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 이 전 대사는 정부나 관련 단체는 물론 국민 개개인이 지금 바로 우리 생활 속에 성큼 다가온 '먼저 온 통일' 즉 북한이탈주민들을 선입견이 아닌 이해와 관심으로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북에 남은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할 때 통일을 향한 작은 희망의 씨앗 역시 함께 전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고구려의 기상을 품고, 만주별판을 달리는 그날까지!

물론 그렇다고 통일만 되면 모든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은 아니다. 당장 취업과 결혼 문제로 힘겨워하는 젊은 세대의 마음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통일은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숙원사업이란 게 이 전 대사의 생각이다.

“요즘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잘 압니다. 하지만, 통일 후 일정 기간 함께 지고 가야 할 짐 때문에 세계로 뻗어 나갈 기회를 포기해야 할까요? 통일이 되면 중국, 러시아 아니 전 세계로 옛 고구려의 기상을 살려, 더 힘차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이제 그만 전쟁의 불안함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어요?”

이병화 전 대사는 스스로를 '통일의 작은 물방울'이라고 표현한다.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과 실천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또 다른 물방울을 불러 모으고 있는 중이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얼마 전 서울역에서 진행된 북한 인권 개선 캠페인에 자신을 따라 엉겁결에 참여한 한 지인이 처음으로 북한 문제와 통일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내년에는 개인 일정을 좀 더 쪼개 더 많은 탈북청소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더없이 기쁘다. 그렇게 이병화 전 대사는 오늘도 신뢰가 '뽕뽕한' 내일의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글.사진 / 권혜리〉



파란 하늘 가을 단풍이 아름답던 지난 11월, 충주에 있는 중산고등학교에서 '북한 주민 인권회복 콘서트'가 열렸다. 재작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인권회복 콘서트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행사다. '통일'이라는 물음표를 던져준 것은 충주중산고 정재용 선생님이시다. 통일에 대해 점점 더 소원해지는 다음 세대들이 한 번쯤 통일과 국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스스로 체화해보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덕분에 '통일' 하면 묘연하게만 느껴왔던 학생들이 자못 달라졌다. 콘서트를 위해 머리를 맞댄 인권회복 동아리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과 노력 때문이다.



유지호 (2학년)

충주중산고 마당발 DJ. 종종 야자시간 라디오를 진행해 모르는 선후배가 없다. 꿈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광고프로듀서. 꿈을 이루면 남북한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만들 예정이다.



김민지 (2학년)

로래 상담자이자 심리학 동아리 회장. 평소 심리학 서적을 즐겨 읽는다. 청소년 감정과 사춘기 뇌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친구들은 민지를 '우리멘탈'이라 부른다. 학생들을 위한 상담교사가 되는 게 꿈이다.



윤유한 (2학년)

전교 1등, 영원히 사는 것이 꿈(?)이다.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왕왕 철학적인 이야기로 사람을 놀라게 한다. 소극적이면서도 적극적이고, 수줍음을 타면서도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전우주 (2학년)

잘 못는다.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삶의 모토다. 선진국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전 세계 빈도국 아이들의 1년치 식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개선하는 것이 꿈이다.

남수아 (2학년)

귀여운 얼굴로, 더 귀여운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아이들이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순수 소녀. 어디서든 인권이 지켜지기를 소망한다.

우리가 북한주민의 인권회복에 관심을 갖게 된 사연

우주 : 학기 초에 통일 관련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통일의 이점과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게 됐어요. 기아문제 동아리를 통해 아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도 알게 됐고요.

수아 : 저도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았거든요. 외가댁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인종차별을 겪었는데, 엄마가 할머니랑 통화하는 얘길 들으면 마음이 아팠어요. 기아나 인종차별에 대한 고민이 인권 문제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유한 : 확실한 계기는 아니지만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중학교 때 친구가 “북한을 지원해주는 게 아깝지 않냐?”고 물어본 거죠. 평소에 북한 주민들을 인도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민지 : 중학교 2학년 때 ‘크로싱(Crossing)’이라는 영화를 보고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예를 들면, 아내가 폐결핵에 걸려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북한에는 약이 없어서 남편이 목숨을 걸고 중국을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우리는 폐결핵이 법정 전염병이라 보건실에서 진료를 하면 무료로 약을 받을 수 있지만, 북에서는 약도 없이 고통스럽게 삶을 연명해야 한다는 게 마음 아팠어요. 그 후로 SNS나 인터넷에 북한 뉴스가 뜨면 바로바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지호 : 저는 솔직히 관심은 없었어요(웃음). 중산NGO 동아리 정재용 선생님이 제안하셔서 참여했던 거거든요. 매년 인권 콘서트를 열면 저희 동아리도 꼭 한 코너를 맡았는데, 이번에는 가상 모의재판을 다뤘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았어요.



연극, 뮤지컬, 모의재판 등 다양한 무대로 꾸며진 콘서트 현장

지호 : 북한은 재판을 상상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다 같이 대본도 쓰고 연기도 했는데, 배경 지식도 필요하고 재판 증거물로 제출할 사진이나 영상도 구해야 해서 주로 인터넷을 많이 찾아봤어요. 탈북민이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북한에서 잘못을 저질렀으니 돌려보내달라는 북한의 요청을 받고 송환 여부를 재판한다는 설정이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탈북민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그냥 무섭다고만 생각했는데, 모의재판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라도 그런 환경에서는 못살겠더라고요.

유한 : 저는 사회를 봤지만 한편으로는 방청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각자 테마별로 많은 정보들을 조사해서 알차게 준비했는데 리허설 때 진행이 매끄럽지 않아 조금 걱정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실전에 들어가니 다들 잘하더라고요.





민지 : 저는 심리학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데 이번 콘서트에서는 연극 동아리와 연합해서 탈북민의 남한 정착 과정을 그린 연극을 했어요. 탈북민들의 인터뷰 자료를 조사해서 대본을 썼고 무대는 한 무대에 두 가지 장면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좀 색다르게 연출했어요. 예를 들면, 탈북 주민들이 카페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하철에서 겪었던 일을 떠올려요. 그럼 조명이 다른 쪽으로 옮겨져서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보여주는 거죠. 탈북여성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 뜻하지 않게 오해를 받는 상황 등 여러 에피소드를 엮었는데, 친구들이 감정이입도 하고 공감도 해줬던 것 같아요.

지호 : 진짜 연극이 제일 호응이 좋았어요. 중간에 꽃제비 역할을 맡았던 아이가 누더기 옷을 입었는데, 바지가 너무 커서 훌러덩 내려가는 일도 있었어요. 애들이 대사 한 마디 한 마디 뱉을 때마다 엄청나게 웃었어요.

우주 : 뮤지컬도 인기가 좋았어요. 너무 잘해서 다들 물개 박수를 쳤어요.



수아 :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퀴즈를 만들었어요. 퀴즈에 참여하면 상품을 준다고 광고를 했더니 친구들이 엄청 몰려오더라고요. 문제 중에 탈북민들이 북한의 일상을 그린 그림도 있었는데, 그걸 본 친구들이 많이 놀라는 눈치였어요. 북한인권문제에 관심 있을 것 같지 않던 이과 친구들조차 자기네는 왜 안 볼렀냐고 서운해 하더라고요.

우주 : 저희 동아리는 북한 기사문제를 PPT로 만들어서 발표했어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일반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현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여러 NGO단체들의 활동상 등을 알려줬죠.

통일은 인권 회복과 국가 정체성을 찾는 지름길

e-행복한 통일 : 북한 주민의 인권회복을 위한 최선의 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호 : 통일을 해야죠. 경제적인 부담이 있긴 하지만, 이산가족이나 현재 탈북민들의 삶을 생각하면 결국엔 통일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민지 :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첫째는 우리가 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둘째는 북한 주민의 인권회복과 탈북민,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셋째는 경제적 측면을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원래 남북은 문화나 언어를 공유했던 한 민족이잖아요. 통일이 되면 우리가 또 다시 한 역사를 이루는 거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할 거라 생각해요. 또 통일 비용을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통일이 되면 오히려 많은 국방비를 줄일 수 있어요. 거기서 절약되는 돈으로 사회복지에 쓸 수 있고요.



유한 : 저는 핵문제가 자꾸 이슈가 되다 보니 안전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중국에게 우리 형제를 빼앗기고 싶지 않고요. 말 안 듣는 형제라도 집 나가서 다른 사람이 산다고 하면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수아 : 저는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6.25전쟁 때 다리를 다쳐서 한쪽을 저세요. 이런 싸움의 흔적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필요 없는 희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기아 문제를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건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넘어진 아이를 모른척하지 않고 일으켜주는 것처럼 통일도 마찬가지로 지인 것 같아요. 도와주기 전에는 내 시간과 돈이 얼마나 들지 생각하게 되지만, 막상 도와주고 나면 뿌듯하잖아요.



통일, 우리가 돌이켰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을 때

e-행복한 통일 : 통일되면 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그때쯤 여러분들은 무얼 하고 있을까요?

지호 : 저는 아바이순대를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다 같이 빵 터짐) 그리고 저는 광고 프로듀서가 되는 게 꿈인데, 그때 통일이 되든 안 되든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캠페인을 만들 생각이예요. 취미로 북한말도 배울 거고요.



민지 : 통일은 결국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상담교사가 되는 게 꿈인데, 통일이 되기 전에 꿈이 이루어지면 탈북민 아이들을 상담해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통일이 된 후에는 남북한 아이들이 건강한 사춘기를 보내도록 곁에서 지켜줄 거고요. 엄마처럼요.

유한 : 옛날에 강원도에서 충주로 오는데 파리 한 마리가 차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창문을 열어줘도 파리가 나가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 파리가 내린 곳은 충주에 다 와서였어요. 강원도 파리가 순식간에 충주 파리가 된 거죠. 통일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예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돌이켰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을 때, 그때가 진정한 통일이 아닐까요?

(친구들의 함성 '오~~~!!')

우주 : 통일은 머지않은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해요. 아직 확정된 꿈은 아니지만 앞으로 세계 국제기구에 들어가 기아 난민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통일이 되면 북쪽 친구들을 만나서 좋아하는 아이들은 누구냐, 그쪽 생활은 어땠냐 물어보면서 엄청 수다를 떨 거예요.

유한 : 저는 통일이 되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듯이 철책 철거에 동참할 생각입니다.

수아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통일이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제기구나 NGO단체에서 일하면서 저소득층 문제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그때 손을 내밀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글. 강문희 / 사진.김규성>



부조리 무상 교육이 부른 '북한 과외 열풍'

조미영(국민통일방송 라디오 진행자)

김일성은 1975년 사회주의 체제 건설 과정에서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며 '무상의무교육제도'를 내걸었다. 하지만 이는 명칭만 있는 허울일 뿐, 학생들은 교복부터 학업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 무상, 의무라는 미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전역을 강타한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허황된 구호로 전락한 것이다.

건설 현장이나 농촌 지원에 학생 동원, 학습시간은 보장 안 돼

북한은 수업료가 무료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선전하지만, 실상은 학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학생들로부터 충당하고 있다. 최근엔 노후화된 기숙사 난방시설을 수리하는 데 돈을 바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뇌물을 '고일(바칠)' 것을 대놓고 요구하기도 한다. 당국에서 나오는 월급(3,000~5,000원)으로는 시장에서 쌀 1kg(최근 평양에서 5,450원에 거래)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종종 파철(쇠붙이의 깨어진 조각)이나 토끼 가죽을 모아오라는 과제가 부여되곤 하는데, 이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통치자금 확보' 사업이기도 하다.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는 당국의 주도로 북한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이 우상화 건설 현장이나 농촌 지원에 동원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조리는 소학교(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집권 이후 '학교는 나라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역군들을 키우는 민족 간부 양성 기지'라고 강조하고 있고, 교육성 등에 '교육의 질을 높이고 현장실습과 실험을 통해 나라의 훌륭한 기술인재들로 키우라'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노동력 착취와 학습시간 보장이 안 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또한 증폭되고 있다고 한다.



▲ 북한 청봉악단 공연



▲ 만경대소년궁전 과외활동

'기회의 불평등' 문제도 크다. 일명 '혁명의 수도'라 불리는 평양 아이들에게 모든 혜택이 집중되고 있어서다. 북한 TV를 보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피아노나 전통악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어린아이들을 볼 수 있다. 이는 조기교육을 통해 예술 인재를 육성하기 때문인데, 평양 특권층의 경우 자녀를 명문 예술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유치원 때부터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북한판 걸그룹인 '모란봉악단', '청봉악단'이 대표적이다.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도 금성학원 출신으로, 일찌감치 자녀의 소질을 찾기 위해 명문 유치원부터 보냈다. 그러나 이런 치열한 경쟁도 일반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7살부터 사상학습 시작, 김정은 일가 이상화가 기본 과목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혁명역사, 혁명활동 등 김씨 일가의 이상화 내용을 기본 과목으로 내세우고 있고, 7세부터 아이들은 '소년단'이라는 조직에 입단해 강도 높은 사상 학습을 받아야 한다. '총성동이 효자동이 되자'는 말은 유치원 때부터 김씨 일가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내세우는 북한 교육의 핵심구호이다. 결국 학교는 북한 정권에 충성을 다할 일꾼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전초기지로 전략했다고 할 수 있겠다.



▲ 북한 과학기술전당을 방문한 조선소년단



▲ 평양 만경대 학생공전에서 열린 조선소년단창립 70돌 기념 공연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의 사상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2014년 4월 1일 자로 무상 의무교육을 11년제에서 12년제로 개편한 것만 봐도 그렇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의 '후대사랑'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학생들은 정작 첫 12년제 무상 의무교육제에 따라 입학 준비에만 1인당 평균 100달러 가량을 사용해야 했다고 한다.

또한 2014년 개정된 북한 교과서는 이상화를 강화했다. 학생들의 첫째 덕목을 '김정은에 대한 충정'으로 상정하고 '세 살 때 충을 잡은 김정은이 1초 간격으로 10개의 과녁을 모두 명중시켰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실기도 했다. 또한 여덟 살이 되기도 전에 승용차로 비포장 도로를 질주했고, 시속 200km의 초고속 배를 몰아 외국 전문가와 경주에서 두 번이나 이겼다는 주장을 펼쳤다. 나뭇잎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는 김일성 신화의 '김정은 버전'인 셈이다.

교원 생계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건 '사교육'

때문에 최근에는 학교 교육에 집중하지 않는 주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학습보다는 현실에서 필요한 '실습'에 대한 학습 욕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평양시와 지방 여러 도시에서 개인교사로 불리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줄줄이 등장하며 각광을 받고 있다. 유명 교원(교사)들은 자기 집 뒷방이나 근처에 학습지도를 위한 셋방까지 마련해 놓고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 과목은 손풍금(아코디언)과 바이올린, 디스코와 전통무용, 그리고 붓글씨와 미술과 같은 예능 분야는 물론이고, 영어와 중국어까지 매우 다양하며, 정통한 교원이 매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7시간 집중 교육하는 개별교육도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과외 열풍은 북한의 시장화와 연동돼서 발전하는 양상을 띤다. 전문 교원들은 한때 이름을 날렸던 유명인들로, 배급이 없고 월급마저 끊겨 사교육에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들은 담당학생 가정에서 매달 100위안(북한 돈 13만 5,000원)씩을 현금으로 받고 있으며, 한꺼번에 4~5명, 많게는 10명 이상의 아이들도 가르친다. 북한이 자랑스럽게 강조하는 '무상교육'은 갈수록



▲ 과외활동 하는 북한 학생들

특 유명 무실해지고 사교육 시장이 교원들의 생계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나중에 신문에서 절 보실 겁니다! ‘탈북민 최초 경찰간부로’



5대 기업소, 우리말로 5대 대기업이 몰려있는 함흥. 하지만 전기가 없어 공장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선다는 이곳에서 정훈이(가명)는 군 입대를 2달 남겨둔 지난 2012년 늦가을, 한 달 만에 ‘직행’으로 남한에 왔다.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해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며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지금은 경찰의 꿈을 꾸며 학업에 정진중인 스물세 살의 정훈이를 만나보자.

🎮 교실에서 난무하는 영어? 알고 보니 인기 게임용어

남한에 온지 넉 달여 만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정훈이는 자기소개 시간에 ‘북한에서 왔고 여러분들보다 두 살이 많긴 하지만 그냥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자고 호기롭게 말했다. 얼마간 학교는 정훈이의 전학 소식에 한바탕 난리가 났다. 쉬는 시간마다 교실 밖 창가에는 ‘누구야? 북한에서 온 학생이 누구야?’하면서 정훈이를 보고 싶어 하는 아이들로 붐볐다.

“침엔 잔뜩 긴장했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잠잠해지더라고요. 물론 북한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됐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물어봐도 될까?’ 하면서 거기(북한) 애들은 어떻게 놀아? 게임은 뭐 해?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정훈이는 한동안 주변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고 했다. 애들이 마치 영어로 대화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 게임용어더라고요. 롤 원딜, 캐릭터 레벨, 골드 스타 써든 이런 거요.” 북한에 있을 때 남한 드라마 CD 몇 개쯤은 보고 왔다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데, 정훈이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남한 학생들 간의 대화가 더욱 낯설게 느껴졌다.

“북한은 폐쇄돼 있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 함경남도나 함경북도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함경북도는 중국과 가까우니까 도강도 쉽고 중국을 통해 남한 문화를 접한 사람들이 더러 있지만, 함경남도에서는 ‘중국’이라는 말만 꺼내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남쪽에 친척이 없으면 남한에 올 생각도 못 하고 그래요.”

🎮 좀 전에 봤는데 또 ‘안녕?’ 인사, ‘날 놀리나?’

정훈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 안팎에서 ‘바른생활 맨’로 불리며 남녀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아침 7시에 등교, 오후 4시까지 학교 수업,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마친뒤 12시까지 한강변에서 운동을 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반복했다. 북한에서도 운동을 즐겨 했다는 그는 특히 체육시간에 두각을 나타내며 몇 개의 메달과 상장을 받기도 했다. 이런 운동능력과 험상궂게 생긴(?) 얼굴 덕분에 학교 ‘일진’들도 감히 건드릴 생각을 못 했다는 정훈이.

“지금이야 얼굴이 많이 풀렸지만 그땐 긴장도 되고 해서 제 표정이 정말 많이



곤어있었거든요(고등학교 시절 학생증을 꺼내 보여줬다). 그래서인지 절 건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한 번은 급식을 먹으려고 다 같이 줄을 서 있는데 건물건들 다니던 아이들이 새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네도 줄 서서 먹어라'고 말해줬죠. 순순히 그렇게 하던데요?(웃음)"



괜히 나섰다가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무섭진 않았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두 살이 더 많은 데다 운동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애들이 겁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안 싸워봐서 모르지만 적어도 지진 않았을 것 같았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정훈이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일이 있었으니, 바로 친구들이 너무 자주 인사를 한다는 것이었다. "북도에서 마주친 한 여자아이가 '안녕?'하며 지나가기에 저도 (손을 작게 흔들며) 안녕~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러다 점심시간에 그 애를 다시 마주쳤는데 또 인사를 해요. 세 번을 봐도 인사를 하고요. 그래서 '날 놀리는 건가?' 생각했죠.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그건 좋아서 그런 거래요. 북한에서는 한두 달 만에 친구를 봐도 그런 인사 안 하거든요. 그런데 남한에선 친구들끼리 '안녕?'하며 인사하는 게 신기했어요."

남한에선 '남한여자'를 조심해야 한다?



이성에 한창 관심이 많은 나이, 정훈이가 북한을 떠나 처음 타본 중국의 지하철에서 인상 깊게 본 것은 공공장소에서 남녀가 손을 잡고 뽀뽀를 하는 장면이었다. "진짜 충격이었어요. 잘못 봤나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 그런 커플이 또 있는 거예요. 뽀뽀하고 껴안는 건 남이 보이지 않는 데서 해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신기하다, 19살 때 처음 알았죠." 북한에선 여자친구가 없었냐고 물었더니, 있긴 있었는데 그건 사귀 거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러다 다시 곰곰 생각하더니 그래도 손은 잡았으니까 사귀 건 맞는 것 같다며 웃었다.

정훈이는 먼저 남한으로 온 엄마와 이모로부터 평소 '남한 여자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다. '남한 여자들은 북한 여자처럼 고지식하고 참한 여자들이 아니다. 여자 만나면 돈을 쓰게 된다고 자주 말씀하셨다. 그런데 학교에서 정훈이를 줄 줄 따라다니며 유독 잘해주는 여학생들이 있었다. 마치 스타가 된 느낌이 들 정도였지만 엄마 말씀 때문에 '사귀고 싶다'는 생각은 못 했다.

"그래도 그 여자 친구들 덕분에 학교생활 적응이 빨랐던 건 인정해요.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도와줬거든요. 개네들이 하는 것만 따라 해도 배우는 게 많았어요. 지금 한국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남한 문화를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을 줬요. 제가 남들보다 빨리

정착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긴 해도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탈북민과 다문화가정 돌보는 경찰이 될래요!

정훈이는 현재 경찰행정학과에 재학 중이며, 반드시 경찰간부시험에 합격할 거라며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배려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 '미친 듯이' 책을 읽어 댔기 때문인지 학과 수업을 따라가고 좋은 학점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했다. 함께 대학에 들어온 한 탈북학생의 경우,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두 번이나 휴학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훈이는 경찰간부시험 특채를 보려면 전공과목을 모두 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은 학과 공부에 열중한 다음, 졸업 후 2~3년간량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치킨집을 경영하며 뒷바라지해주는 엄마도 정훈이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기자님은 앞으로 8년 안에 신문에서 제 인터뷰 기사를 보시게 될 겁니다. '남한에 와서 경찰 간부가 된 탈북청년'이라는 제목의 기사요.(웃음) 전 앞으로 경찰 간부가 되면 남한 사회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탈북민이나 다문화 가정에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끝으로, 겨울방학을 맞아 시작한 아르바이트를 하러 떠나는 정훈이에게 '올 겨울, 공부 말고 뭘 할 거냐고 물었더니 스키를 타러 갈 거란다. 그는 '남한에 와서 가장 재밌었던 게 바로 스키였다며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 그 순간도 시간이 아까울 정도라며 눈을 반짝였다. 그렇다면 북한에 있을 땐 이 무렵 주로 뭘 하고 놀았냐고 물었더니 '불장난'이란 답이 돌아왔다.

"강가에서 썰매 타다가 추우면 불을 피워서 함께 놀아요. 나무란 나무는 다 걸어오고 마른 강내대(옥수수대)를 모아다가 불을 피운 다음에 그 불 위를 뛰어넘는 장난도 쳤어요. 그러다가 바짓가랑이 다 타기도 하고(웃음), 썰매 타다 젖은



엉덩이 말린다고 불에 갖다 댔다가 막 (옷감이) 녹는 냄새 나고... 아, 옥수수랑 감자를 가끔 구워 먹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글. 기자회견>

※ 그동안 '좌충우돌 남한 적응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7년 2월호(49호)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 정착 사례를 보여주는 '당신이 통일주인공' 코너가 게재될 예정입니다.

※ 위 사례에서 소개된 북한의 문화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경험에 의한 것으로 현재 북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과 탈북 연도를 참조해주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듣는 내고향 이야기입니다.



2016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안 심의·채택

“운영·상임위원회의 정책건의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더 많은 도전과 위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법은 결국 통일을 위한 국론 결집’이라는 것입니다. 민주평통 운영·상임위원들은 전문성과 대표성으로, 8천만 민족을 위한 통일 비전과 통일 구상을 제시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더 멋진, 더 훌륭한 기회에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유호열 수석부의장 마무리 인사 중)”

• 통일준비와 탈북민 정착, 북핵 및 인권문제 등 정책건의 •

민주평통은 12월 7일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2016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운영·상임위원 3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회의에서는 통일·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7대 중점 추진과제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는 민주평통법에 따라 개최되는 법정회의로 △유호열 수석부의장의 개회사 △권태오 사무처장의 인사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 보고 △분과위원회 활동현황 영상 보고 △정책건의안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초 국민동행 국민공감 국론결집을 목표로 활동한 결과, 5차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때 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실천적 행동을 이어왔으며, 국내 보건의료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준비 대토론회를 열 수 있었다”며, 이는 자문위원들의 의지와 정성의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전문지식과 의견을 아낌없이 보태준 운영·상임위원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민주평통은 국내 정세가 불안할수록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국민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태오 사무처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갈등과 분열, 혼란의 소용돌이가 앞으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길을 위해서 해안과 경륜으로 헌신 봉사하는 자문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사무처는 자문위원들의 각종 통일 활동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평화가 넘쳐나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원한다는 말로 송년 인사를 대신했다.



▲ 유호열 수석부의장



▲ 권태오 사무처장



• 18기가 출범하는 내년도도 통일준비와 국민소통 지속 •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통일·대북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에서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통일준비와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홍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고 핵능력이 고도화되어가는 상황에서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북한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핵화와 북한 인권문제, 통일공간 확대, 탈북민 정착을 위한 노력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무처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추진한 국내·해외 지역회의, 법정회의, 생활현장의 풀뿌리 통일 여론수렴, 재외동포 및 국제사회의 통일지지 기반 구축, 국론결집 및 국민통합 활동 등 주요 업무 추진현황과 성과를 보고했다. 또한, 제18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내년도에는 통일준비와 국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통일의지를 대변할 자문위원 위촉,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심층적 정책건의, 통일 콘텐츠 개발 및 제공,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해외 통일지지기반 확대, 탈북민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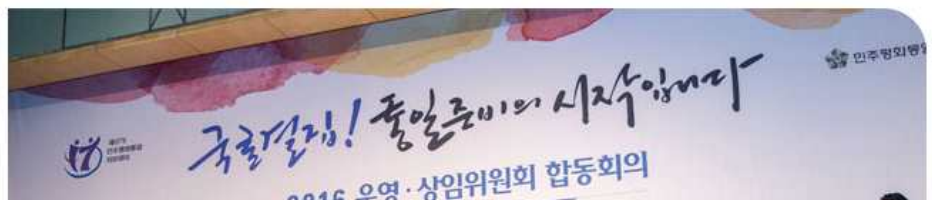
▲ 홍용표 통일부장관



• 정책건의안 총 7대 과제 제시 •

이어진 정책건의안 채택 시간에는 김홍호 기획조정분과위원장의 발표에 따라 △지속 가능한 통일준비 체계 제도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정책의 효율적 이행(이상 대내 분야)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법 제시 △북한 인권문제 해결과 인도적 지원 원칙 확립(이상 대북 분야) △대북제재 관련 국제공조 지속 강화 △통일준비를 위한 주변국 발전전략과의 연계(이상 대외 분야) △국론결집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 강화 등 총 7대 과제를 건의·의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는 이날 정책건의안 채택에 앞서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10개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4년간의 통일·대북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추진 방향과 과제에 대한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일반국민, 통일문제 전문가,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여론조사 결과와 정책건의 집필팀 회의 과정 등을 검토한 뒤 정책건의안을 최종 성안했다.





<글.기자희 / 사진.신영민>

참가소감

“미래세대에게 행복한 통일시대를 선물하려면...”



홍석표 상임위원
(경제과학환경분과위원회)

지난 1년간 분과위 활동들을 돌아보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통일의 초석을 다져왔다는 것에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한 녹화사업과 환경산업,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작했는데, 이는 남북을 하나의 국토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상임위원
(통일교육홍보분과)

오늘 회의는 운영·상임위원들의 책임감을 북돋아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분과의 2017년 역점사업 중 하나는 청년·청소년·여성들의 통일교육을 심도있게 다루는 것입니다. 교육 관계 기관 및 학교와 함께 장단기 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문위원들이 이러한 책임을 다해줄 때 미래세대에게 행복한 통일시대를 선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내 부의장·협의회장 합동연수’에서 2017년 활동방향 모색

민주평통은 지난 12월 12~13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경북지역회의(부의장 한삼화) 주관으로 ‘국내 부의장·협의회장 합동연수’를 개최했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공감·동행·결집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합동연수에는 전국 시·도 부의장과 시·군·구 협의회장 2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최근 국내 경제의 어려움과 안보상황, 급변하는 국제질서 하에 2016년 통일 활동의 성과를 분석하고 2017년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로 치러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유례없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에서 실시되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국론결집 노고 치하, 통일 각오 다지는 워크숍으로...

연수 1일 차인 12일에는 △유호열 수석부의장 및 권태오 사무처장 인사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도정 현안보고 △김홍신 작가(민주시민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특별강연 △민주평통 사무처의 2016년 업무성과 분석 및 2017년 계획보고 △분임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2016년 한 해는 자문위원들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론분열을 막고 탈북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 되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을 펼쳐왔으며, 젊은 세대를 통일의 역군으로 끌어안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등 통일을 위한 국론결집에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트럼프 정권 출범 등 앞으로 직면한 과제는 단순하지도 간단하지도 않다”며 “이 자리에 모인 부의장·협의회장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통일을 이뤄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지는 워크숍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유호열 수석부의장



▲ 김관용 경북도지사



▲ 권태오 사무처장



이어,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도정 현안보고에서 “현재와 같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국민들이 더욱 단합할 수 있도록 호국전선에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이 나서야 한다”며 국론결집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민주평통이 통일이라는 역사적인 과업을 이뤄서 다음 세대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권태오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록 지금 의장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계획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전반기에 각 지역의 모든 통일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지도자는 평시에 빛이 나지 않지만 위기가 있을 때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라며, 각 지역에서 국민의 여론을 주도하면서 헌신하는 자문위원들이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반도의 찬란한 꽃’이 되어 미래세대에 ‘꿀’ 나눠주시길

작가인 김홍신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은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과 지도자의 덕목 등에 대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김홍신 원장은 현재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지 못하고 정체된 대한민국의 경제와 군사력, 각종 사회적 지표, 외교능력을 완벽하게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먼저 남북갈등을 해결하고 3만 명의 탈북민을 적극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젊은 세대에게 통일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한반도의 미래에 꿀을 나눠주는 대한민국의 가장 찬란한 꽃”이라며 통일되었을 때 그 향자가 반드시 역사 위에 새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 김홍신작가

이어 2016년 통일활동 사업 성과 분석과 2017년 사업 계획에 관한 김안나 기획조정관의 보고가 있었다. 김안나 국장은 업무보고에서 “18기 자문위원구성에 있어 성별, 세대별, 지역별 계층별 대표성을 더욱 확보하고 세부 인선기준을 마련해 자문위원 후보자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자문회의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표적인 헌법기구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국민소통과 통일공감대 확산,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해외 통일 지지기반 확대, 탈북민 자립지원 확대 등의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분임토의 시간에는 2016년 시·도 지역회의와 시·군·구 지역협의회에서 추진한 다양한 통일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분석을 토대로 2017년도 중점 사업과 향후 통일활동 계획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향후 민주평통이 남북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단합, 국론결집을 이루며 실질적인 통일준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관련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연수 이튿날에는, 시·도별 분임토의 결과 발표시간을 가진 후, 삼국 통일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통일전을 방문하여 통일에 대한 염원과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





<글.기자희 / 사진.신영민>

참가소감

“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 ”

박용성(강원 부의장)

오늘 회의는 민주평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시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2017년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욱더 탈북민들을 가까이하고 학생·청년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사실 17기 부의장 임기 중에 통일이 되길 바라고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통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미연·백영자(남양주시·군포시협의회장)

교육 내용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짧은 시간임에도 많은 것을 공감할 수 있었어요. 우리 민족의 '체면주의'라는 단점 덕분에 오히려 경제가 급성장했다는 표현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통일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요?(김미연 회장) 삼국시대 통일정신이 깃든 경주에서 전국 지역협의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를 걱정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역에 돌아가자문위원들과 국론결집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백영자 회장)
※ 사진 = 김점순(의정부), 김미연(남양주), 최선희(김포), 백영자(군포) 협의회장

송진오(대구동구협의회장)

'통일의 길로 가는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지역 통일행사를 더욱 열정적으로 이끌어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연수를 마쳤습니다. 동구협의회는 영유아부터 10대들까지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세대인 줌마렐라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을 더욱 지속강화해 나가겠습니다.



NUAC NEWS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6년 평화통일기반 구축 유공 국민훈장 수여식 개최 유공 자문위원 44명과 28개 지역 협의회 표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유호열, 사무처장 권태오)는 12월 22일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16 국민훈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는 유공 자문위원 44명과 28개 지역 협의회, 축하객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호열 수석부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권태오 사무처장 인사, 국민훈장 수여, 의장 단체표창 수여, 축하공연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민주평통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 공감·동행·결집을 목표로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 117개국에서 풀뿌리 통일운동에 앞장서 왔다"며 "북핵 폐기와 통일 실현의 원동력은 우리 국민의 단합과 대북정책의 일관성"이라고 강조했다. 권태오 사무처장은 "이번 국민훈장과 의장표창 수상자 선정을 위해 지역협의회와 지역회의는 추천은 물론 자문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선정했다"며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국민훈장 수여식이 진행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유공 국민훈장 수상자 목록〉

▲국민훈장 모란장(7명) = 구본국(경북 군위군 협의회장), 김수근(서울 서초구 자문위원), 김승수(대전 유성구 협의회장), 김승이(前 전남 진도군 협의회장), 김점순(경기 의정부시 협의회장), 박해진(경기부의장), 임태량(로스앤젤레스 협의회장)

▲국민훈장 동백장(9명) = 김세현(부산 기장군 협의회장), 김용호(기획조정분과위원장), 김정길(경남 거제시 협의회장), 박양홍(상임위원), 양우진(서울 중구 협의회장), 유오복(경기 안산시 협의회장), 이광우(대구 북구 협의회장), 정영자(前 울산부의장), 최복수(서울 광진구 협의회장)

▲국민훈장 목련장(12명) = 김병석(전북 남원시 협의회장), 김정훈(전남 무안군 협의회장), 서병연(광주 남구 협의회장), 손재필(경기 수원시 협의회장), 신해두(서울 노원구 협의회장), 오광수(서울 동대문구 협의회장), 오병문(중미·카리브 협의회장), 오치인(충남 보령시 협의회장), 이동수(상임위원), 지수옥(경북 포항시 지회장), 최재현(인천 계양구 협의회장), 황재길(아프리카 협의회장)

▲국민훈장 석류장(14명) = 권석대(오렌지·샌디에고 협의회장), 김순자(前 강원 정선군 협의회장), 김판수(상임위원), 김화목(강원 강릉시 협의회장), 류채형(부산 서구 협의회장), 성낙헌(경기 시흥시 협의회장), 신종철(경남 산청군 협의회장), 오금남(서울 종로구 지회장), 임영현(경기 여주시 협의회장), 정찬주(인천 남동구 협의회장), 주양중(호주 자문위원), 최재무(서울 구로구 자문위원), 허개열(경북 경산시 협의회장), 홍순철(충북지역회의 간사)

▲국민포장(3명) = 김구회(상임위원), 노현규(제주 서귀포시 지회장), 이동현(대구 달서구 간사)

▲의장표창(우수협의회)(30개) = 서울(성동구, 서대문구, 양천구), 부산(동구, 부산진구), 대구(달서구), 인천(서구), 광주(광산구), 대전(유성구), 울산(북구), 경기(용인시, 의왕시, 양평군), 강원(동해시, 영월군), 충북(충주시, 영동군), 충남(당진시, 홍성군), 전남(순창군, 고창군), 전북(순창군, 장성군), 경북(영천시, 성주군, 울진군), 경남(창원시, 의령군), 미주(휴스턴), 중국(선양)

북핵문제의 해법과 한반도 평화통일 주제로 한
‘2016 한·일 평화통일 포럼’ 일본 동경에서 개최



민주평통은 12월 15일 일본 동경 뉴오타니호텔에서 ‘북핵문제의 해법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일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일본지역회의(부의장 오공태 재일민단 중앙본부 단장)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포럼에서는 이준규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과 나카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일본 민진당 중의원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고,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 동경국제대 국제전략연구소 교수가 1·2 세션의 진행을 맡았으며, 각 세션별로 한일 양국 전문가들이 북한 정세와 북핵문제 해결방안, 한일 관계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태오 사무처장은 개회인사에서 “북한핵문제의 완전한 해결만이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그리고 역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한미일, 특히 한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지역회의 '2016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 열어



민주평통 울산지역회의는 12월 8일 한국폴리텍대학에서 대학생과 자문위원 등 25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6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를 열었다. 통일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청년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배병인 울산청년위원장의 개회사, 이진용 울산지역부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정용섭 자동차시스템과 교수의 '대북제재의 필요성과 북한인권의 실상' 강연, 석주은 탈북안보 강사의 '북한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 강연 등이 진행 진행됐다. 또한 동 대학 한석훈 학생이 '대학생의 눈으로 본 통일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 후, 북한 또는 통일에 대해 대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각자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일시대 시민교실, 포럼, 강연회 등

좌담회



▲ 여성통일좌담회 (부산 남구협의회)



▼ 여성리더와 함께하는 통일좌담회 (전남 함평군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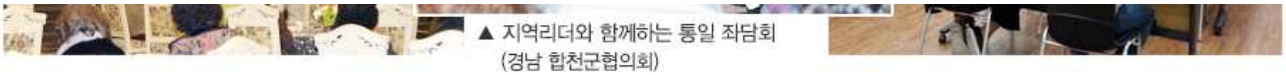
부산 남구협의회(회장 박동천)는 11월 22일 구청에서 '2016 여성통일좌담회'를 개최했고, 전남 함평군협의회(회장 윤영수)는 23일 군청에서 대항기관장과 관내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여성리더와 함께하는 통일좌담회'를 열었다.

▼ 통일좌담회 (충북 보은군협의회)



▼ 인천지역 청년 통일좌담회 (인천지역회의)





▲ 지역리더와 함께하는 통일 좌담회
(경남 합천군협의회)

충북 보은군협의회(회장 이남수)는 12월 8일 지역 리더들과 함께 '통일좌담회'를 진행했고, 경남 합천군협의회(회장 이점용)는 11월 22일 군청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지역리더와 함께하는 통일 좌담회'를 열었다. 인천지역회의(부위원장 허희숙)는 11월 24일 관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 대표 청년단체회원과 함께 '인천지역 청년 통일좌담회'를 개최했다.

포럼



◀ 제31차 충북평화통일포럼 (충북지역회의)
▼ 제3회 다크투어리즘 포럼세미나 (강원지역회의)



충북지역회의(부의장 한상길)는 11월 23일 '북한인권법 시행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제31차 충북평화통일포럼'을 열었고, 강원지역회의(부의장 박용성)는 12월 8일 강원대학교에서 국제 테러리즘 극복과 세계평화증진을 위한 이승복기념관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제3회 다크투어리즘 포럼세미나'를 개최했다.



▲ 하반기 서울평화통일포럼 (서울지역회의)



▲ 제30차 부산평화통일포럼 (부산지역회의)



▲ 지역사회 리더와 함께하는 통일토론회
(강원 흥천군협의회)

서울지역회의(부의장 손경식)는 12월 1일 세종대학교에서 '2016년 하반기 서울평화통일포럼'을 열었고, 부산지역회의(부의장 이영숙)는 부산평화통일포럼과 함께 11월 29일 관내 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 함께 '제30차 부산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강원 흥천군협의회(회장 양태호)는 12월 20일 관내 기관 단체장과 주요인사 지역 언론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리더와 함께하는 통일토론회'를 개최했다.

통일시대
시민교실



▲ 찾아가는 통일시대 시민교실 (인천 용진군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 (경북 영덕군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 (전북 익산시협의회)

인천 용진군협의회(회장 최성일)는 12월 5일 지역 사회단체장, 이장, 주민자치위원, 주민 등과 함께 '찾아가는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진

행했고 경북 영덕군협의회(회장 최길동)는 11월 18일 군청에서 공무원 및 군민들을 대상으로 '2016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다. 같은 날 전북 익산시협의회(회장 김영배)도 새마을회관에 시민들을 초청해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다.



▲ 지평선 아카데미와 함께하는 통일시대 시민교실 (전북 김제시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 (경남 고성군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 (경북 봉화군협의회)

전북 김제시협의회(회장 도인기)는 11월 24일 시청에서 시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평선 아카데미와 함께하는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고 경남 고성군협의회(회장 김성진)는 11월 25일 고성문화체육센터에서 관내 주요 인사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2016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진행했다. 경북 봉화군협의회(회장 김희문)도 11월 24일 봉화군 청소년 센터에서 군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으며, 강원 홍천군협의회(회장 양태호)는 12월 9일 '홍천군민과 함께하는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다.



▲ 홍천군민과 함께하는 통일시대 시민교실 (강원 홍천군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 (인천 연수구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 (대구 남구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 (경북 예천군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 (부산 영도구협의회)

인천 연수구협의회(회장 장한조)와 대구 남구협의회(회장 노판석)는 11월 23일과 12월 16일 구청에서 각각 '2016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고, 경북 예천군협의회(회장 강무한)는 12월 9일 예천청소년수련관에서, 부산 영도구협의회(회장 김용민)는 11월 25일 구청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2016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다.



▼ 자문위원 연수 (경기 가평군협의회)



▲ 달북가정 통일리더십 체험활동

▲ 통일시대 시민교실 통일토크 콘서트
(경기 이천시협의회)



▲ 탈북가정 통일리더십 체험활동 (부산지역회의)

경기 이천시협의회(회장 오문식)는 12월 19일 장호원 청미복지관 강당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2016 통일시대 시민교실 통일토크 콘서트'를 개최했고, 경기 가평군협의회(회장 이병재)는 16~19일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위원 연수를 실시했다. 부산지역회의(부의장 이영숙, 여성위원장 신경주)는 12월 17일 기장군 일원에서 탈북청소년, 지도교사, 부산여성위원장, 부산지역 여성분과위원장 등과 함께 '탈북가정 통일리더십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강연회



▲ 찾아가는 통일강연회 (전남 해남군협의회)



▲ 통일강연회 및 간담회 (부산 기장군협의회)

전남 해남군협의회(회장 명채규)는 12월 6일 해남군유림회관(향교)에서 지역 원로들과 함께 '2016년 찾아가는 통일강연회'를 개최했고, 부산 기장군협의회(회장 김세현)는 11월 25일 통일무지개회원, 군민, 북한이탈주민 등과 함께 '2016년 통일강연회 및 간담회'를 열었다.

자문위원 연수



▲ 하반기 세종충남지역 자문위원 연수 (충남지역회의)



▲ 대구지역 자문위원 연수 (대구지역회의)



▲ 경기지역 자문위원 연수 (경기 안산시협의회)

충남지역회의는 11월 24~25일 '2016 하반기 세종충남지역 자문위원 연수'를 열었고, 대구지역회의(부의장 박규하)는 12월 9일 '2016 대구지역 자문위원 연수'를 실시했다.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오복)는 11월 21~22일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서 실시한 '2016 경기지역 자문위원 연수'에 참석했다.



▲ 경남1권역 자문위원 연수 (경남 의령군협의회)



▼ 제17기 자문위원 워크숍 (경기 광주시협의회) ▼ 경기 여성 통일사업 평가회의 (경기 시흥시협의회)



경남 의령군협의회(회장 조충규)는 11월 24일 경남사회진흥연수원에서 '경남1권역 자문위원 연수'를 열었고, 경기 광주시협의회(회장 박종선)는 11월 25~26일 '제17기 자문위원 워크숍'을 실시했으며, 경기 시흥시협의회(회장 성낙헌)는 12월 14일 경기지역 여성분과 위원장들과 함께 '2016 경기 여성 통일사업 평가회의'를 개최했다.



▲ 심포지엄 (충남 천안시협의회)



▲ 대학생 통일세미나, 통일동아리 발대식 (경기 안양시협의회)



▲ 남북 청년 통일준비 토크콘서트 (서울 영등포구협의회)

충남 천안시협의회(회장 유병수)는 11월 22일 선문대학교에서 '북한인권법 시행과 향후 통일의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경기 안양시협의회(회장 이상호)는 11월 28일 안양대학교에서 **대학생 통일세미나, 통일동아리 발대식**을 열었다. 서울 영등포구협의회(회장 김원국)는 12월 9일 서울시립 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 **'남북 청년 통일준비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 대학생 통일동아리(통일나래) 통일현장 워크숍 (전북지역회의 청년위원회)



▼ 자문위원 연찬회 (제주 서귀포시협의회)



▲ 활동평가 및 송년회 (경기 구리시협의회)

전북지역회의 청년위원회(위원장 박영택)는 12월 10~11일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대학생 통일동아리(통일나래) 통일현장 워크숍**을 개최했고, 제주 서귀포시협의회(회장 이경용)는 12월 9일 대령기관장,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등과 함께 **'2016 자문위원 연찬회'**를 열었으며, 경기 구리시협의회(회장 신영출)는 12월 8일 **'2016년 활동평가 및 송년회'**를 진행했다.



▲ 의장표창 수여식 및 통일강연회 (강원지역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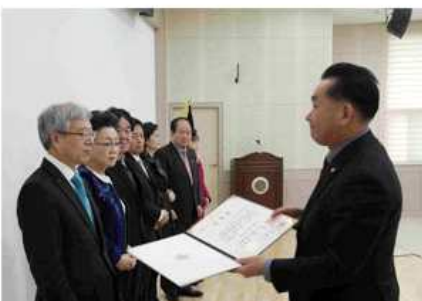


▲ 전남활동평가회의 및 의장표창 전수식 (전남지역회의)



▲ 유공자문위원 의장표창 수여식 (충남지역회의)

강원지역회의(부의장 박용성)는 12월 16일 춘천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2016년 의장표창 수여식 및 통일강연회'**를 열고 전남지역회의(부의장 장영인)는 20일 **'2016년 전남활동평가회의 및 의장표창 전수식'**을, 충남지역회의(부의장 김병목)는 21일 **'2016년도 유공자문위원 의장표창 수여식'**을 각각 개최했다.



▼ 국문결집 강연회 및 2016년 의장표창 수여식 (인천지역회의)



▼ 평화통일기반 구축 유공자문위원 표창 수여식 (제주지역회의)



▲ 통일안보강연및 의장표창 수여식 (충북지역회의)

충북지역회의(부의장 한상길)는 23일 '2016년 통일안보강연및 의장표창 수여식'을, 인천지역회의(부의장 허희숙)는 '국론결집 강연회 및 2016년 의장표창 수여식'을 개최했으며, 제주지역회의(부의장 김순택)도 21일 '2016 평화통일기반 구축 유공 자문위원 표창 수여식'을 열었다.



▲ 의장(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 (충남 당진시협의회)



▲ 의장(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 (인천 서구협의회)



▼ 의장(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 (충북 영동군협의회)

충남 당진시협의회(회장 윤수일)는 2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6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단체표창 수여식'에서 의장(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했으며, 이에 앞선 21일 유공자문위원 의장(대통령)표창을 전수식을 열었다. 인천 서구협의회(회장 유경학)와 충북 영동군협의회(회장 정원용)도 22일 의장(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 통일대학 제12기 민주평화통일지도자과정 수료식 (경기 안산시협의회)



▲ 전북지역 활동평가회 및 시상식 (전북지역회의)



▼ 통일활동 보고회 및 송년회 (경기 포천시협의회)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오복)는 15일 통일준비를 위한 '통일대학 제12기 민주평화통일지도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했고,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는 23일 '2016 전북지역 활동평가회 및 시상식'을 열었으며, 경기 포천시협의회(회장 오병익)도 19일 '통일활동 보고회 및 송년회'를 진행했다.

통일문화 확산



▼ 평화통일 남북한 전통무용 대제전 (전북 남원시협의회)



▲ 청소년과 함께 하는 통일문화 한마당
(강원 고성군협의회)

▲ 통일동행 일일 나눔찾집 (서울 관악구협의회)

전북 남원시협의회(회장 김병석)는 11월 26일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지역 주민 및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평화통일 남북한 전통무용 대제전**을 개최했고 강원 고성군협의회(회장 황병구)는 25일 고성문화원에서 **'2016 통일문화 한마당'**을 열었다. 서울 관악구협의회(회장 이경범)는 11월 22일 구청에서 **'먼저 온 통일과 함께 하는 통일동행 일일 나눔찾집'**을 운영했다.



▲ 통일안보 현장견학 (강원 속초시협의회)



▼ 자문위원 선진지 및 안보전적지 견학
(강원 삼척시협의회)



▲ 통일안보 현장체험 (경북 안동시협의회)

강원 속초시협의회(회장 장세호)는 11월 2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일대로 **통일안보 현장견학**을 다녀왔고 강원 삼척시협의회(회장 김무호)는 11월 26~27일 **'2016년 자문위원 선진지 및 안보전적지 견학'**을 실시했다. 경북 안동시협의회(회장 권순협)는 11월 25~26일 안동대학생, 시민 등 함께 경기 충서부전선 비무장지대로 **통일안보 현장체험**을 다녀왔다.

▼ 통일염원 현장체험 (경기 광명시협의회)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현장체험
(부산 연제구협의회)



▲ 안보현장 견학 (경기 부천시협의회)

경기 광명시협의회(회장 윤순갑)는 11월 25일 통일공감 강연회 및 음악회 참석 시민들을 초청해 **'통일염원 현장체험'**을 실시했고, 부산 연제구협의회(회장 안재권)는 12월 3일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일대에서 **'2016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현장체험'**을 진행했다. 경기 부천시협의회(회장 김기명)는 12월 14일 시민들과 함께 연천 태풍전망대와 제3땅굴 등으로 **안보현장 견학**을 다녀왔다.



▲ 평화통일 및 민주평통 홍보 캠페인 (전남 순천시협의회)



▲ 명사초청강연 및 송년음악회 (서울 송파구협의회)

전남 순천시협의회(회장 류계숙)는 11월 19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평화통일 및 민주평통 홍보 캠페인**을 펼쳤고, 서울 송파구협의회(회장 윤종윤)는 12월 21일 송파구청에서 자문위원, 송파구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사초청강연 및 송년음악회'**를 개최했다.

통일미래세대 육성



강연회



▲ 제1차 찾아가는 통일강연회 (경기 의왕시협의회)

▲ 청소년 통일안보강연회 (충남 태안군협의회)

▲ 예비사회인을 위한 통일강연회 (강원 동해시협의회)

경기 의왕시협의회(회장 이필정)는 12월 14일 모락중학교에서 '찾아가는 통일강연회(1차)'를 열고, 충남 태안군협의회(회장 강철민)는 11월 23일 만리포고등학교에서 '2016년 청소년 통일안보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원 동해시협의회(회장 김홍수)는 12월 5일 동해광리고등학교에서 '예비사회인을 위한 통일강연회'를 실시했다.



▲ 통일안보 강연회 (전남 완도군협의회)

▲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강연회 (전북 정읍시협의회)

전남 완도군협의회(회장 최번부)는 12월 9일 완도고등학교, 완도여자중학교에서 '통일안보 강연회'를 열고, 전북 정읍시협의회(회장 유남영)는 11월 25일 배영고등학교와 호남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강연회'를 2회에 걸쳐 실시했다.

통일교육



▲ 청소년 통일교육 (경기 포천시협의회)

◀ 통일 준비를 위한 청소년 체험형 통일교육 (충남 홍성군협의회)

▼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 (경남 밀양시협의회)

경기 포천시협의회(회장 오병익)는 12월 8일 일동중학교 학생 및 인솔교사 등을 대상으로 '2016년 청소년 통일교육'을, 충남 홍성군협의회(회장 이무형)는 11월 30일 수능시험을 마친 홍주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통일 준비를 위한 청소년 체험형 통일교육'을 진행했다. 경남 밀양시협의회(회장 윤경일)는 12월 2일 미리벌초등학교에서 '2016년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을 진행했다.



▼ 청소년 통일교육 (경기 하남시협의회)



▲ 통일교육 (대전 동구협의회)



▲ 2차 통일역량강화 순회교육 (전북 임실군협의회)

대전 동구협의회(회장 남진근)는 12월 14일 대전 보문고등학교에서 '예비사회인과 함께하는 문화로 여는 통일세상'을 주제로 **통일교육**을, 경기 하남시협의회(회장 류인호)는 12월 9일 하남고등학교에서 '**청소년 통일교육**'을 각각 실시했다. 전북 임실군협의회(회장 김인기)도 11월 21일 임실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통일역량강화 순회교육**'을 진행했다.

통일교실



▲ 북한바로알기 청소년 통일교실 (대구 동구협의회)



▲ 예비사회인(고3)과 함께하는 통일교실 (경북 경산시협의회)



▼ 청소년 눈높이 통일교실 (경북 김천시협의회)

대구 동구협의회(회장 송진오)는 12월 5일 청구중학교에서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북한바로알기 청소년 통일교실**'을 개최했으며, 경북 경산시협의회(회장 허개열)는 12월 13일 경산고등학교에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 관계자 및 학생을 초청해 '**예비사회인(고3)과 함께하는 통일교실**'을 열었다. 경북 김천시협의회(회장 최용남)도 성의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 눈높이 통일교실**'을 진행했다.

▼ 찾아가는 통일교실 (전남 구례군협의회)



▲ 초등학생 눈높이 통일교실 (경북 군위군협의회)



▲ 찾아가는 통일교실 (경기 가평군협의회)

전남 구례군협의회(회장 이종석)는 12월 2일 고3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일교실**'을 열고 한겨레고등학교 곽종문 교장선생님과 탈북학생을 초청해 통일대화의 자리를 가졌다. 경북 군위군협의회(회장 구분국)는 12월 12일 군위초등학교에서 제2회 '**2016년 초등학생 눈높이 통일교실**'을 개최했고, 같은 날, 경기 가평군협의회(회장 이병재)도 가평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통일교실**'을 열었다.



▲ 통일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통일시대 시민교실 (전남 고흥군협의회)



▲ 청소년 통일교실 (충남 예산군협의회)



▲ 통일의식 기르기 통일 교실 (전남 목포시협의회)

전남 고흥군협의회(회장 김정설)는 고흥고등학교에서 '**통일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각각 열었고, 충남 예산군협의회(회장 정달순)는 12월 21일 예산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탈북인사 초청 '**청소년 통일교실**'을 진행했다. 전남 목포시협의회(회장 우승하)는 12월 15일 목포용호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통일의식 기르기 통일 교실**'을 실시했다.



▲ 가야초등학교와 함께하는 청소년 통일공감 교육 (부산 부산진구협의회)



▲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및 학부모 통일교육 토론회 (강원 화천군협의회)



▲ 청소년 통일 원탁토론평광장 (전남 고흥군협의회)

부산 부산진구협의회(회장 백옥자)에서는 19일 부산가야초등학교에서 '가야초등학교와 함께하는 청소년 통일공감 교육'을 개최했고, 강원 화천군협의회(회장 이태호)는 20일 화천군 간동중고등학교에서 '2016년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및 학부모 통일교육 토론회'를 열었으며, 전남 고흥군협의회(회장 김정설)는 22일 고흥고등학교에서 '청소년 통일 원탁토론평광장' 행사를 진행했다.



▲ 청소년 통일드림토크콘서트 (전북 부안군협의회)



▲ 제5회 통일우연 나의주장발표대회 (충북 증평군협의회)



▲ 통일미래세대 현장학습 (경남 합천군협의회)

전북 부안군협의회(회장 이영식)는 23일 부안여고 강당에서 '청소년 통일드림토크콘서트'를 개최했고, 충북 증평군협의회(회장 강춘희)는 16일 증평군립도서관에서 형석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5회 통일우연 나의주장발표대회'를 진행했다. 경남 합천군협의회(회장 이경용)는 19일 합천여자고등학교 및 삼가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통일미래세대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통일이야기



▲ 예비사회인(고3)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경북 문경시협의회)



▲ 찾아가는 통일이야기 (울산 남구협의회)



▲ 찾아가는 통일이야기 (경기 용인시협의회)

경북 문경시협의회(회장 이재석)는 12월 7일 문창고등학교에서 '2016 예비사회인(고3)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특강을 열었고, 울산 남구협의회(회장 최해상)는 11월 21일 대현고등학교에서 2016 청소년 통일교육 '찾아가는 통일이야기'를 진행했다. 경기 용인시협의회(회장 황신철)는 12월 13일 정평중학교에서 한겨레중고등학교 탈북학생과 곽중문 교장선생님을 초청해 '찾아가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실시했다.

토크 콘서트



▼ 생생 통일토크 콘서트 (전남 진도군협의회)





▲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부산 동래구협의회)



▲ 통일토크콘서트 (전남 영광군협의회)



부산 동래구협의회(회장 이태희)는 12월 16일 부산동래원예고등학교에서 '평화통일 토크콘서트'를 개최했고, 전남 영광군협의회(회장 권재국)는 12월 1일 영광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통일토크콘서트'를 열었으며, 전남 진도군협의회(회장 이기암)는 진도실업고등학교에서 '생생 통일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 제6회 청소년 통일골든벨 (인천 남구협의회)



▼ 초등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충남 공주시협의회) ▼ 제8회 역사, 통일 퀴즈대회 (충남 아산시협의회)



인천 남구협의회(회장 신병희)는 11월 29일 인천고등학교에서 '2016년도 제6회 청소년 통일골든벨'을, 충남 공주시협의회(회장 김기필)는 11월 22일 중동초등학교에서 '2016 초등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대회를 실시했으며, 충남 아산시협의회(회장 김세영)는 12월 9일 아산시민체육관에서 '제8회 역사, 통일 퀴즈대회'를, 제주지역회의(부의장 김순택)는 11월 26일 '제7회 통일영어스피치 대회 본선대회'를 각각 진행했다.

▼ 제7회 통일영어스피치 대회 본선대회 (제주지역회의)



안보현장 견학



▲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 (전남 강진군협의회)



▲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 (충남 예산군협의회)



▲ 청소년 통일준비 안보현장체험학습 (강원 횡성군협의회)

전남 강진군협의회(회장 안영진)는 12월 1일 청람중학교 학생 및 인솔교사 등과 함께 '2016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을 다녀왔고, 충남 예산군협의회(회장 정달순)는 11월 22일 삼교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진각 일원에서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강원 횡성군협의회(회장 조원용)는 12월 13일 횡성청년회의소(회장 원운재) 회원 및 지도교사, 횡성중·고등학교, 대동여자중학교 학생 등과 함께 '2016년 청소년 통일준비 안보현장체험학습'을 진행했다.





▲ 후계세대와 함께하는 통일안보체험 (강원 양양군협의회)



▲ 안보체험 (경남 남해군협의회)



▲ 통일미래세대 통일안보현장 견학 (전북 부안군협의회)

강원 양양군협의회(회장 김현수)는 11월 18일 양양중학교 학생, 인솔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계세대와 함께하는 통일안보체험'을 개최했고, 경남 남해군협의회(회장 최홍백)는 11월 28일 남해중학교 학생, 지도교사 등과 함께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서 안보체험 행사를 가졌으며, 전북 부안군협의회(회장 이영식)는 11월 29~30일 백산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미래세대 통일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 부모와 함께 하는 통일캠프 (충남 금산군협의회)



▲ 통일캠프 (부산 사상구협의회)



▲ 해외어린이를 위한 희망양말만들기 (경기 과천시협의회)

충남 금산군협의회(회장 태진수)는 12월 2~3일 진산자연휴양림에서 '2016 부모와 함께 하는 통일캠프'를 열고, 부산 사상구협의회(회장 이명숙)는 12월 10~11일 초, 중학생과 함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및 기장군청소년수련관 등에서 '2016 통일캠프'를 진행했으며, 경기 과천시협의회(회장 이순형)는 12월 12일 시청에서 '해외어린이를 위한 희망양말만들기' 자원봉사 릴레이를 이어나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평화통일 한마당 (충남 서산시협의회)



▲ 멘티가족 화합한마당 (서울 중랑구협의회)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화합한마당 (경북 포항시협의회)

충남 서산시협의회(회장 송낙인)는 12월 17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평화통일 한마당'을, 서울 중랑구협의회(회장 김상희)는 12월 4일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멘토링 활동으로 '멘티가족 화합한마당'을 개최했다. 경북 포항시협의회(회장 김정치)는 12월 7일 북한이탈주민 및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화합한마당'을 열었고, 광주 북구협의회(회장 김선남)는 11월 23일 '북한이탈주민(학생) 장학금 전달 및 통일축제한마당'을 진행했다.



▲ 북한이탈주민(학생) 장학금 전달 및 통일축제한마당 (광주 북구협의회)

▼ 탈북민과 함께하는 대학생 통일토크, 청년! 통일을 말하다 (경남 진주시협의회)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좌담회 (경기 의정부시협의회)

▲ '함께 해요! 어울림 멘토링' 평가간담회 (인천 서구협의회)

경남 진주시협의회(회장 원호영)는 11월 29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탈북민과 함께하는 대학생 통일토크, 청년! 통일을 말하다' 행사를 개최했고, 경기 의정부시협의회(회장 김점순)는 12월 10일 새마을지회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좌담회'를 열었다. 인천 서구협의회(회장 유정하)와 세일고등학교(교장 이병희)는 12월 6일 세일고 멘토학생 및 지도교사, 북한이탈주민 자녀(멘티) 및 학부모 등과 함께 '함께 해요! 어울림 멘토링' 평가간담회를 가졌다.

김장나눔



◀ 북한이탈주민지원을 위한 김장나눔 (경기 화성시협의회)

▼ 북한이탈주민과 김장담그기 (서울 금천구협의회)



▲ 희망플러스 달서구 김장나눔 대축제 (대구 달서구협의회)

경기 화성시협의회(회장 홍진환)는 관내 '북한이탈주민지원을 위한 김장나눔' 행사를 열었고, 서울 금천구협의회(회장 박준식)는 12월 2일 지역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등에 전달할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는 행사를 진행했다. 대구 달서구협의회(회장 김옥열)는 11월 26일 '2016 희망플러스 달서구 김장나눔 대축제'를 열어 지역 북한이탈주민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치를 전달했다.



▲ 이웃사랑 김장나눔 (경남 함안군협의회)



▲ 사랑의 김장 나눔 (제주 제주시협의회)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서울 구로구협의회)

경남 함안군협의회(회장 이현석)는 11월 17일 가야읍사무소청사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이웃사랑 김장나눔' 활동을, 제주 제주시협의회(회장 임강자)와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홍영선)는 11월 26일 제주적십자화관에서 지역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서울 구로구협의회(회장 이계명)는 12월 3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각각 진행했다.



▲ 행복한 김장담그기 및 따뜻한 한끼 식사 (대전 서구협의회)



▲ 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충남 청양군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김장담그기 (경북 구미시협의회)

대전 서구협의회(회장 김보영)는 12월 6일 서구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행복한 김장담그기 및 따뜻한 한끼 식사' 행사를, 충남 청양군협의회(회장 강석중)는 12월 15일 여성분과위원회 주최로 '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을 실시했다. 경북 구미시협의회(회장 김철호)는 12월 4일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북한이탈주민 김장담그기 체험'을 진행했다.



▲ 김장나눔행사 (경남 양산시협의회)



▲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북한이탈주민 김장김치 담궈주기 (전남 영암군협의회)



▼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체험 (부산 서구협의회)

경남 양산시협의회(회장 전재근)는 12월 6일 관내 한 노인관련시설에서 양산시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김장나눔행사'를 각각 실시했고, 전남 영암군협의회(회장 김성대)는 1일 영암군 자활센터에서 여성·청년분과 자문위원, 경찰관계자들과 함께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북한이탈주민 김장김치 담궈주기' 나눔봉사 행사를 가졌다. 부산 서구협의회(회장 류재형)는 20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여성, 여성자문위원들과 함께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통일이야기



▲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충북 충주시협의회)



▲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경북 상주시협의회)



▲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충남 당진시협의회)

충북 충주시협의회(회장 석중호)는 11월 18일 예성여자고등학교에서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경북 상주시협의회(회장 권세환)는 11월 28일 성신여자중학교에서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충남 당진시협의회(회장 윤수일)는 11월 30일 호서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각각 개최했다.



▲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충남 서천군협의회)



▲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충남 보령시협의회)



▲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충북 옥천군협의회)

충남 서천군협의회(회장 홍순석)는 11월 30일 서천여중고에서 한겨레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초청해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진행했으며, 충남 보령시협의회(회장 오치인)와 충북 옥천군협의회(회장 곡군상)는 12월 15일 대천고등학교와 옥천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각각 개최했다.





▲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전북 완주군협의회)



▲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6차) (충북 청주시협의회)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이야기 (경기 여주시협의회)

전북 완주군협의회(회장 정완철)는 12월 14일 삼례공업고등학교에서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열었고, 충북 청주시협의회(회장 안덕호)는 12월 13일 청주서경중학교에서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6차)’ 행사를 진행했으며, 경기 여주시협의회(회장 임영헌)는 12월 8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이야기’ 간담회를 열었다.

문화체험



▲ 1:1멘토-멘티 결연식 및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체험 (충북 증평군협의회)



▲ 지역 문화체험 (충북 단양군협의회)



▲ 어깨동무하기 북한이탈청소년 남한문화체험 (부산 사하구협의회)

충북 증평군협의회(회장 강춘희)는 11월 27일 경주 지역 일대에서 ‘1:1멘토-멘티 결연식 및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체험’을 진행했고, 충북 단양군협의회(회장 정하모)는 11월 24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부산 사하구협의회(회장 배백식)는 12월 10일 ‘어깨동무하기 북한이탈청소년 남한문화체험’을 진행했고, 경기 김포시협의회(회장 최선희)는 12월 17일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2016년 어깨동무 멘토링 평가회의 및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 어깨동무 멘토링 평가회의 및 문화체험 (경기 김포시협의회)



▲ 합동결혼식 (대구 수성구협의회)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빵 나눔 봉사 (충남 논산시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떡 나누기 (서울 노원구협의회)

대구 수성구협의회(회장 신철범)는 11월 21일 북한이탈주민 부부 2쌍을 대상으로 ‘합동결혼식’을 개최했으며, 충남 논산시협의회(회장 송덕빈)는 12월 8일 ‘희망! 2016 행복한 세상 만들기’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빵 나눔 봉사’ 행사를 실시했다. 서울 노원구협의회(회장 신해두)는 12월 14일 서울노원경찰서에서 경찰서관계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떡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고, 충북 괴산군협의회(회장 박용호)는 11월 17일 괴산성모병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뒤, 괴산사랑



상품권 등을 전달하는 행사를 열었다.



▲ 무료 건강검진 및 위문식 (충북 괴산군협의회)

송년회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2016 송년회 (경기 부천시협의회)



▲ 탈북민과 함께하는 송년의밤 (경북 안동시협의회)



▲ 어깨동무하기 멘토링 한마음가족 송년회 (울산 남구협의회)

경기 부천시협의회(회장 김기명)는 12월 15일 자문위원과 북한이탈주민 70여명과 김치를 담그며 **송년회**를 개최했고, 경북 안동시협의회(회장 권순협)는 21일 탈북민, 경찰서 및 안동농협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탈북민과 함께하는 송년의밤'**을 열었다. 울산 남구협의회(회장 최해상)도 23일 울산문화예술회관 **'2016 어깨동무하기 멘토링 한마음가족 송년회'**를 개최했다.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한마음 체육대회 및 송년회 (경기 파주시협의회)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활동평가회의 및 송년회 (전남 구례군협의회)



▲ 탈북아동생활공동체 '우리집' 후원회 밤 (경기 과천시협의회)

경기 파주시협의회(회장 김경선)는 11일 파주시민회관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한마음 체육대회 및 송년회**를 진행했고, 전남 구례군협의회(회장 이종석)도 23일 **'2016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활동평가회의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경기 과천시협의회(회장 이순형)는 20일 탈북청소년 생활공동체를 방문해 **선물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경남 진주시협의회(회장 원호영) 멘토 자문위원들은 23일 어깨동무하기 멘티 학생(탈북학생)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



▲ 멘티-멘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기 (경남 진주시협의회)

지역 봉사활동



▼ 사랑의 김장 나누기 (강원 영월군협의회)

▼ 사랑의 연탄나눔 (전북 전주시협의회)





▲ 사랑의 연탄나누기 (강원 평창군협의회)

강원 영월군협의회(회장 김유영)는 11월 17일 영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총 4,500포기의 김치를 담가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각각 12kg씩의 김치를, 전북 전주시협의회(회장 나춘균)는 12월 16일 지역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 4,000장을 전달했다. 강원 평창군협의회(회장 김영해)는 11월 22일 지역 저소득층 4가구에 연탄 2,000장을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강원 속초시협의회(회장 장세호)는 21일 속초시청을 방문해 대항기관장에게 실향민을 위한 연탄성금을 기증하고, 금호동 일대 실향민 가정에 연탄 배달봉사를 실시했다.



▲ 실향민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누기 (강원 속초시협의회)



▲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강원 철원군협의회)

▼ 무료급식 배식봉사활동 (경북 칠곡군협의회)



▲ 무료 배식 봉사 (경남 거창군협의회)

강원 철원군협의회(회장 현대섭)는 12월 13일 철원군 실내체육관에서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모금행사로 마련된 성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했으며, 경북 칠곡군협의회(회장 이수현)는 11월 18일 칠곡군 사랑의 집에서 어려운 이웃 및 어르신들께 '무료급식 배식봉사 활동'을, 경남 거창군협의회(회장 신현기)는 12월 9일 거창군 삼의 쉼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배식 봉사'를 실시했다.

해외 지역 통일활동



▲ 제3회 평화통일 국제 컨퍼런스 (칭다오협의회)



중국 칭다오협의회(회장 이영남)와 당진시협의회(회장 윤수일)는 12월 12일 칭다오에서 '제3회 평화통일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양 협의회는 컨퍼런스에 앞서 민주평화통일사업에 서로 협력하고 우호를 증진해 나갈 것을 협약했으며, 향후 평화통일 국제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국내외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힘쓰는 한편, 2014년 시행된 '제1차 칭다오협의회 청소년 초청 통일안보견학'사업 내용을 검토, 보강해 2년에 한 번씩 평화통일 청소년 교육 사업을 번갈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 평화통일의 밤 (하와이협의회)

미국 하와이협의회(회장 김동균)는 12월 9일 와이키키리조트호텔 연회장에서 '2016 평화통일의 밤' 행사를 개최해 한 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사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연말에 주고받던 선물 대신 그 비용을 후원금으로 모금해 지역의 한 노인시설에 전달하기로 했다.



▲ 제4회 도전 통일골든벨 행사 (하노이지회)

베트남 하노이지회(지회장 김정인)는 11월 17일 하노이한국국제학교에서 대사관 관계자 및 한인사회 단체장, 교민들과 함께 '제4회 도전 통일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 54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통일국기 그리기와 통일골든벨 5행시, 북한 친구에게 편지쓰기 등의 사전행사가 진행됐으며, 이어 OX 퀴즈 예선을 통해 선발된 5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 골든벨 본 행사를 진행한 결과 11학년 관진현 학생이 영예의 골든벨을 올렸다. 이와 함께 행사 중간 중간에 우리의 소원 노래 부르기, 댄스 동아리의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되는 등 즐거운 통일 축제로 치러졌다.



▼ SF 민주평통 송년의 밤 (샌프란시스코협의회)



▲ 통일 축구대회 (샌프란시스코협의회)

미국 샌프란시스코협의회(회장 정승덕)는 11월 5일 전·현직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축구팀과 실리콘밸리 축구협회 산하 팀들 간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협의회는 실리콘밸리 축구협회에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민주평통의 통일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12월 2일에는 자문위원과 지역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SF 민주평통 송년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정승덕 회장은 "통일을 위한 역량 있는 평통 협의회가 되도록 모든 위원들이 솔선수범해 나가자"고 말했다.

미국 LA지역협의회(회장 임태량)는 12월 17일 로스엔젤레



스 국립묘지에서 개최하는 **레스 어크로스 아메리카(Wreath Across America)** 행사에 참석해 한국전 참전용사를 포함한 모든 전쟁 영웅들에게 헌화했다. Wreath Across America는 미 전국 국립묘지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행사이다.



▲ 레스 어크로스 아메리카(Wreath Across America) (LA협의회)



때론 말줄임표나 쉼표 같은 마침표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고치고 또 고쳐도 어쩔지 부족하게만 보이는 문장들이 생길 때면 잠시 마침표를 찍어둔다. 마침표를 찍는다 해서 그것이 반드시 끝이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번 손을 댔지만 끝내 완벽해지지 못한 문장에 안달하는 동안 정작 그 문장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들을 잊지 않기 위한 잠시간의 마무리인 셈이다. 인생에도 가끔 그런 마침표가 필요한 순간들이 찾아온다. 그래, 유난히 부산했기에 제대로 떠나보내지 못한 지난해에 오랜 망설임 끝으로 마침표를 찍어본다. 체념의 의미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반성과 다짐인 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앙금처럼 가라앉은 어제의 망설임과 진짜 쓰고 싶었던 오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해 동해의 긴 허리선을 따라 걸어봤다. 그렇게 올해의 첫 문장은 대한민국 7번 국도에서 시작한다.

☞ 미련을 비워내는 방법, '고성'

구태여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를 택한 여행길은 과연 한적하고 느렸다. 험하기로 소문난다는 미시령의 구불 길을 엉금엉금 기어내려 7번 국도와 맞닿자, 그제야 투박한 민낯의 들녘이나 드문드문 자리한 오래된 시골마을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다. 그렇게 또 한참을 달리면 질푸른 동해바다의 머리맡이 시야 끝에 잡힌다.

얼마 전부터 고성에서 출발해 삼척까지 구불구불 이어지는 240km의 해안국도에 새로운 애칭이 생겼다. 무려 '낭만가도'다. 불쑥 등장한 낭만이란 단어가 쑥스러워 주위를 둘러보는 것도 잠시, 그 낭만이 시작되는 길목에서 만난 화진포의 그림 같은 풍경에 감탄사가 터진다. 호수와 바다가 만난 동해안 최대 규모의 석호는 봄여름가을겨울 조금씩 다른 얼굴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계절에 아랑곳없는 울창한 송림과 유난히 높고 파란 겨울의 하늘이 호수 위로 제 얼굴을 비치는 동안 유유히 무리 지은 철새 떼가 한바탕 물장구를 쳐댄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화진포의 성이라 불리는 김일성 별장과 화진포해수욕장 등의 관광지가 사이좋게 모여 있다.



▲ 호국영웅센터



▲ 화진포의 성(김일성 별장)



▲ 화진포해수욕장

독일명명 건축가가 지어, 1948년부터 2년 간 김일성 일가의 여름별장으로 이용됐다는 화진포의 성은 문자 그대로 언덕 위의 성이다. 생각보다 아담한 규모의 별장은 그 모양새보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으로 더 유명하다. 이층의 전망대로 뛰어 올라가 창문을 활짝 열면, 네모난 액자 속으로 동해의 선명한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 펼쳐진다. 좀 더 차분히 바다를 바라보고 싶다면 화진포해수욕장으로 향하면 된다. 화진포의 성에서 송림 사이로 내려다보이는 바다가 바로 화진포 해변이다. 인적이 드문 이때쯤이면 수만 년간 바위가 부서져 만들어진 백사장을 오롯이 차지할 수 있다. 눈치 볼 것 없이 잘그락 거리는 미련과 망설임을 떠나려 보낸다. 여유가 된다면 내친김에 고성읍 통일전망대도 지척이라 두루 둘러보기를 추천한다.



▲ 월남전참전 기념탑



▲ 화진포의 성 (통일전시관)

☞ 욕심이 덜어내기 위한 멈춤, '속초'

미련을 털어 내자 미적지근했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다시 7번 국도 위에 올라서 다음 목적지인 속초로 향하다 보니 드디어 도로 옆으로 바짝 바다가 따라붙는다. 눈 쌓인 동해바다를 그리며 출발했건만, 남의 속도 모르고 마냥 해맑은 겨울 하늘과 신경전을 벌이는 동안 어느새 파도소리가 거문고의 음률과 닮았다는 영금정에 도착한다. 지금은 동명항 끝자락 암반 위 아담한 정자에 영금정이라는 현판이 달려있지만, 본래 영금정은 정자가 아닌 바위산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방파제의 골재로 채취되어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 아바이마을의 오징어순대와 아바이순대, 명태화냉면 한 상

음악소리 같다는 파도의 부대낌을 귀에 담을 수 없어 아쉽지만, 해안선 최전선의 정자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풍취 역시 빼어나 찾아 온 발걸음이 헛되는 일은 없다. 원 없이 바다를 구경했다면 이번엔 속초 도심 속으로 향해본다.

지척의 아바이마을은 1.4후퇴 때 남하하는 국군을 따라 내려왔다가 북쪽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실항민들이 정착해 생겨난 마을로 지금도 거주민의 60%가 함경도 출신이다. 덕분에 이곳에서는 함경도식으로 조리한 오징어순대와 아바이순대를 맛볼 수 있는데, 선지를 많이 넣은 순대는 쫄득한 맛이 일품이고 속이 꽉 찬 오징어순대는 담백해 여행자의 주린 배를 채우기에 그만이다. 그리고 특별하지 않아서 더욱 경감 있는 좁은 골목을 지나면 200원의 즐거움, 갯배체험도 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 것. 그리고 이쯤에서 과한 다짐이나 욕심을 덜어낸다.

진짜 하고 싶은 오늘의 이야기, '양양'

그리고 눈꺼풀은 무겁고 오후 햇살마저 게을러지는 시간, 이번에는 속초와 맞닿아 있는 양양에서도 첫손에 꼽히는 사찰로 향한다. 삼국유사를 지은 일연이 머물렀다는 천년고찰의 첫 인상은 압도적이다. 탁 트인 바다 위에 웅크린 사찰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가파른 오르막과 돌계단을 수없이 걸어 올라서야 하지만, 그 끝에 마주하는 경관은 달기만 하다.

절벽 위 소나무에 기댄 정자에 올라 멀리 시선을 두어 그윽하게 감긴 동해의 수평선 아래 바다가 긴 숨을 내쉴 때면 멀리서부터 파도가 꿈틀댄다. 그 래, 바다의 숨소리에 맞춰 숨을 가다듬는다. 새해의 원대한 포부로 머릿속을 가득 채워 돌아가리라 다짐했건만 생각이 문장이 되기 전 파도에 휩쓸려 흩어져 간다. 불필요한 미사여구와 복잡한 첨언, 자리를 못 찾은 문장 기호들이 똥똥 떠다니는 동안 감정이 벽차오른다. 설명할 길 없는 감정들이 잦아들자 말끔해진 머릿속이 다시 첫 문장을 기다린다. 이제 정말 올해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다.



▲ 홍련암

낙산사의 의상대와 더불어 동해 최고의 일출 장소로 손꼽히는 하조대까지 둘러봤다면 낭만가도의 3분의 1쯤은 감상한 셈이 된다. 돌아가야 할 시간, 구름처럼 깔리기 시작한 안개 속을 헤매다 기어이 해가 저물고서야 한계령을 넘어선다.

다시 내일의 해가 뜬다면, 털어낸 미련과 욕심의 빈자리마다 새로운 희망과 다짐을 적어 넣을 수 있으리라 믿으며...



▲ 원흥보전



▲ 해수관음상

가두배추와 사자고추로 만든 고소한 기름밥

* 아수하다(북한말) = 아깝고 서운하다(남한말) / 가두배추(북한말) = 양배추(남한말) /
사자고추(북한말) = 피망(남한말) / 망꼬리(북한말) = 꼴찌(남한말) /
볶음밥(북한말) = 프라이팬(남한말) / 기름밥(북한말) = 볶음밥(남한말)

글. 권혜리 / 그림.이택중





아, 이걸 제 특제소스가 들어간 기름밥입니다.



기름밥이요? 오~오!
채소가 들어간 볶음밥 같은데요?



안에 재료는 뭐가 들어간거죠?



기본은 가두배추죠. 그리고 얇게 썬 사자고추도 꼭 들어가야 제대로 된 기름밥이라고 할 수 있죠~.



가두배추는 뭐고,
사자고추는 뭐죠?



네. 가두배추는 양배추, 사자고추는
피망이에요. 어! 이제 지짐판이
충분히 달궜으니 볶으면 요리가
완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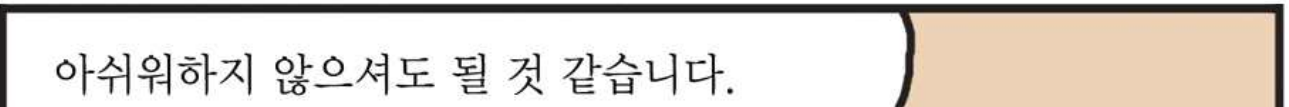
그런데 선생님! 이번에는
합격할 자신 있습니까?



네! 사실 이번에 떨어지면
망꼬리인 셈인데 마지막으로
기름밥을 맛보여 주지 못하면
아수해서 가족들 얼굴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맛을 보니 절대 꿀찌는 안하실 것 같거든요.



오늘 최고의 요리는 이 기름밥입니다!!





설에 맛보는 별미 보양식, 개성무침

개성무침은 예부터 북한의 개성 지방에서 설날에 먹던 음식으로,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모든 고기를 한데 모아 무와 함께 찌낸 음식이다. 조상들은 겨울철 냉기 가득한 찬바람에 기운을 잃어 병을 앓을 때, 고기를 모아 푹 찌낸 요리를 먹어 몸에 양기를 더했다. 더불어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함유한 무를 듬뿍 넣어 소화를 도와 주니 맛은 물론 지혜까지 가득 채운 음식이라 할 것이다.

요리재료

무 200g, 닭고기 200g, 소고기 200g, 돼지고기 200g, 표고버섯 3개, 밤 4개, 호두 한줌, 대추 5개, 은행 10톨, 실고추 약간
양념장 재료 : 간장 1/3컵, 꿀 3큰술, 다진 파 2큰술, 다진마늘 1큰술, 깨소금 1큰술, 후추 약간, 참기름 약간



요리방법



1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한 입 크기로 자른 다음 핏물을 빼주고, 닭고기는 물로 씻어준다.



2 표고버섯은 4등분으로 자르고 대추, 호두, 밤, 은행을 준비한다.





3 양념장 레시피를 섞어 만든 뒤 고기와 함께 버무려준다.



4 양념장 레시피를 섞어 만든 뒤 고기와 함께 버무려준다.



5 기름을 둘러 살짝 달군 팬에 양념된 닭고기와 소고기를 볶아주고, 절반 정도 익으면 무, 밤, 표고버섯, 대추를 넣고, 나머지 양념장을 넣은 다음 물을 부어 30분 이상 푹 끓인다.



6 점이 거의 완성되면 호두, 은행을 넣고 윤기나게 조리낸다.

<글.사진 / 요리연구가 박민지>

북한의 설 대표 음식 Best 3

북한에서는 설에 어떤 음식을 즐겨 먹을까? 대표적인 북한의 설 음식 세 가지를 소개한다.

- 떡국보다 맛있는 북한식 만둣국!

- 남한과 달리 북한의 많은 지역에서 떡국 대신 만둣국을 먹는다. 설은 큰 명절이기에 우리가 익히 아는 평양만두처럼 커다란 만두를 빚곤 한다.

- 한가위 아닌 설에 즐기는 송편

- 남한에서는 한가위를 대표하는 음식인 송편을 북에서는 설에도 즐겨 먹는다. 많은 새터민들은 '송편은 기쁜 날 맛보는 것이기에 설에도 즐겨먹는다'고 밝혔다.

- 북한의 신선로, 어복쟁반

- 설을 맞아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북에서는 어복쟁반을 대접하곤 한다. 넓은 놋그릇 위에 채소, 고기 등 여러 재료를 펼쳐놓고 양념장을 찍어먹는 우리의 전골과 유사한 요리.



가을엔 '4행시'를 써주세요!

남만청년, 천고마비, 가을단풍 등 가을을 상징하는 네 글자로 4행시를 지어주세요.

가 위로 자르면 이 질긴 그리움이 잘릴 것 같나?
을 매나 보고 싶따꼬. 저 북녘에 계실 울 어머이께
단 술(=식혜)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픈데 가당키나 하나.
 이제는 꿈에서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 달라꼬
풍 등에 소망 한 줄만 찌고릴 뿐.. 통일이 언제 될라노.
 으잉? 통일이 언제 될라카노. 내는 울 어머이가 사무치게
 보고 싶은데.
 (부자되자)

남 떠러지에 떨어졌던 남과 북의 6.25전쟁
만 일에 말이야 6.25가 터지지 않았다면 통일이라는
 말도 우리국민들 가슴에는 없었겠지
청 춘을 나라에 바치며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을 생각하며
년 일 매년 매달 매일 통일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터보다시)

천 년 같은 저녁 노을녘, 지나가는 바람소리에 목이 메이고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 가을의 낙엽을
 보며 통일의 냄새를 기억하기도 하고, 풍성해질 대한민국의 모습에 깜짝 놀라기도 한다네!
고 생 끝에 낙(樂)이 오듯이 무릇,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존재하듯 우리의 인생에도 단계가 있는
 듯하네.
마 지막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제 생애 가장 화려한 붉은 빛을 수놓듯이
비 밀 없이 버림과 얻음의美學을 표현하고자 하는 통일의 몸부림을 이제서야 기억하네.
 (유지복)

천 천히 급하지 않게 하지만 꾸준하게
고 뜨게 바라고 노력한다면 통일에의 염원이 이뤄질
 것입니다.
마 음마다 평화통일을 품고 온 대한민국 방방곡곡 그

남 자! 거기 잘 있소? 내말은 잘 들리요?

바람을 기쁘게 가득 채웁시다.

비 추는 희망의 빛이 온 나라에 퍼져 그 온기가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감싸 행복으로 남북이 하나
될 것입니다.

(수리노을)

만 일 들린다면 대답 좀 해 주구려! 그대를 볼 수 있다면

청 록빛 금수강산, 맑은 바다가 떠나가도록 소리 지르리라!

년 말 소원도 어김없이 저 선 너머 당신과 같이 통일이오!

(복학생)

2016년 'e-행복한 통일' 총정리 이벤트

O·X퀴즈!!

2016년 한해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e-행복한 통일'을 꾸준히 구독해 주신 열혈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준비한 O·X퀴즈! 2016년 웹진에 소개된 기사들의 내용을 보시고, 맞으면 'O' 표시를, 틀리다면 'X' 표시를 해주세요. 정답을 모두 맞춰주신 5분을 선정해 신작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티켓 2매씩을 선물로 드립니다.



정답이 헛갈릴 때는 '정답힌트'가 있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2016년을 시작했던 1월호는 e행복한통일 35호다.

[힌트보기 >](#)



'e행복한통일'에서는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기사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e행복한통일' 41호의 '통일 돋보기' 주제는 '6·25전쟁'이다.

[힌트보기 >](#)



북한에서는 피망을 가두배추라고 한다.

[힌트보기 >](#)



콧수염으로 유명한 바리톤 김동규는 '통일을 여는 사람들' 코너에 인터뷰이로 등장했다.

[힌트보기 >](#)

ex) 1번-O, 2번-X

■ 응모기간 : 2017. 1. 1 ~ 2017. 1. 20

■ 응모방법 : 하단에 비밀댓글로 남기거나

카카오톡(ID : 행복한통일)에 남겨주세요~

■ 당선자수 : 5명

■ 시상내역 : 영화티켓 2매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한 상품 미수령은 당사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2017 정유년 당신의 통일 버킷리스트는?



꼬꼬댁!! 꼬꼬! 2017년 정유년(丁酉年), '붉은 닭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힘찬 시작과 함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통일 버킷리스트'를 만듭니다. '2017년 새해, 통일이 된다면 나는 000을 하겠다'라는 형식에 맞춰, 통일 대한민국에서 하고 싶은 일 또는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적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명의 참가자에게 커피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또한 선정된 참가자의 통일 버킷리스트는 웹진 'e행복한 통일'에 게재됩니다.

- 응모기간 : 2017. 1. 1 ~ 2017. 1. 20
- 응모방법 : 하단에 비밀댓글로 남기거나 카카오톡(ID : 행복한통일)에 남겨주세요~

- 당선자수 : 10명
- 시상내역 : 커피교환권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한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e-행복한통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맞이 통일 소망 메시지' 이벤트

번호	닉네임	이 메 일
1	김수빈	**qls6990@naver.com
2	스카치2000	**otch2000@naver.com
3	hoihos	**hs94@nate.com
4	전형	**ptsgud2@naver.com
5	모닝글로리	**isyhek@naver.com

'생활 속 실천한 작은 통일' 이벤트

번호	닉네임	이 메 일
1	지니	**nvoyage124@naver.com
2	김상철	**xhdfud789@naver.com
3	네잎클로버	**zkr@naver.com
4	봄이양	**oalexiel80@gmail.com
5	보리빵	**teto1030@hanmail.net

'웹진 감상평' 이벤트

번호	닉네임	이 메 일
1	김연아	**d@hanmail.net
2	도토리	**tio@naver.com
3	이승원	**nane7@naver.com

'웹진 만족도 조사(email)' 이벤트

번호	휴대폰 번호	번호	휴대폰 번호
1	010-**-18-6473	9	010-**-50-4437

2	010-**-61-9805	10	010-**-18-7317
3	010-**-76-6803	11	010-**-35-0272
4	010-**-40-9477	12	010-**-09-5337
5	010-**-04-0210	13	010-**-26-2598
6	010-**-96-1833	14	010-**-24-2269
7	010-**-13-7962	15	010-**-00-9857
8	010-**-58-3526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